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를 위한 기초연구

책임 연구자 : 서 미

공동 연구자 : 유민상

손영민

최수정



청소년상담연구 230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를 위한 기초연구

인 쇄 : 2022년 12월

발 행 : 2022년 12월

발 행 인 : 윤효식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33 / F. (051)662-3008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비매품

ISBN 978-89-8234-893-8 94330

ISBN 978-89-8234-001-7 (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간행사

청소년 시기는 급격한 신체적·정서적 변화로 다양한 스트레스와 문제를 경험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에서부터 코로나 19 이후 우울, 불안, 자살, 자해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 등 청소년 문제는 다변화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부터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환경 위기로 인한 문제는 청소년 개인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청소년 개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청소년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류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연구된 이후 이루어진 바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종합상담시스템’의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 또한 2000년 이후 20여년의 사회적, 환경적 변화로 인한 청소년 문제를 반영하지 못했던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급변한 청소년 문제를 반영한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 체계를 새로이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청소년 문제 동향 분석,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FGI 및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 체계는 다변화된 청소년 문제를 유목화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 기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과 관점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개념에서의 합의를 이끌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기초적인 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발된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 체계는 현재 청소년상담복지현장에서 활용하는 종합상담시스템 CYS-net을 개편하여 2023년부터 운영되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의 청소년 문제 유형에 반영되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실효성 있는 사례관리를 이끌 것입니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해주신 청소년상담복지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선생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박사님과 본원 연구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구 결과가 청소년 문제 관련 연구에서부터 상담복지 정책 수립 및 실제 개입에 밑거름이 되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희식 

초 록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이 호소하는 문제로 개념화하여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 체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청소년 문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환경적 변화로 새롭게 부각된 청소년 문제들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새롭게 나타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문헌연구 조사, 청소년종합상담시스템(CYS-Net) 호소문제 분석,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전문가 델파이조사 과정을 통해 다변화된 청소년 문제를 반영한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청소년 문제유형은 최종적으로 9개의 대분류(정신건강, 대인관계, 학업 및 진로, 과의존/중독, 폭력피해, 폭력가해 및 비행, 성,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빈곤 및 경제적 결핍), 43개의 중분류, 133개의 소분류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문제유형 분류체계와는 구별된 특징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존 문제유형 분류체계에 비해 최근 상담현장에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반영된 대분류를 구성하였으며, 기존 문제유형 분류 체계가 대분류와 소분류의 2차원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3차원으로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문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발달상의 문제에서부터 최근 급증한 청소년 문제까지 다변화된 청소년 문제를 유목화 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2023년부터 운영되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문제유형분류를 구성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기초 정보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센터까지 전국 800여개 기관에서의 청소년 문제, 특히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자료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담서비스의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호소하는 문제를 유목화하는 것은 상담목표의 설정과 개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호소문제에 기반한 문제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실효성 있는 상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유형

체계가 FGI와 델파이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지만 소분류의 경우 1차 델파이에서 모든 영역의 소분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2차 델파이에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분류 체계에 대한 보완과 타당화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담자나 사례관리자가 청소년의 호소문제를 정확하고 일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문제유형 분류에 대한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담 장면에서 위기수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다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문제유형에 대한 위기수준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주요어: 청소년 문제 유형, 청소년 호소문제, 델파이조사

목차 |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

II. 이론적 배경 | 5

1.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	5
가. 청소년 문제의 개념	5
나.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의 필요성	8
다.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 체계 유형	9
라. 국내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 현황	12
2. 2000년 이후 청소년 문제 동향	17
가.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17
나. 사이버폭력	18
다. 디지털 성폭력	19
라. 도박행동	20
마. 사회적 고립	21
3. 시사점	22

III. 연구방법 | 24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호소문제 분석	24
가. 분석대상 및 방법	24
2.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24
가. 참여대상	24
나. 인터뷰 기간 및 방법	25
다. 인터뷰 도구 및 내용	25
라. 분석 방법	28
3. 전문가 델파이조사	29
가. 조사대상 및 기간	29
나. 조사방법	29
다. 분석방법	30

IV. 분석결과 | 31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호소문제 분석 결과	31
가. 연도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31
나. 연도별 청소년 문제유형 대분류 분석 결과	33
다. 연도별 청소년 문제유형 소분류 분석 결과	35
라. CYS-Net 청소년 문제 유형의 한계점	43
2.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43
가. 신규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에 대한 의견	43
나. 신규 청소년 문제 유형 소분류에 대한 의견	46
다. 전문가 FGI 시사점	48
3.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52
가.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52
나. 청소년 문제 유형 중분류	53
다. 청소년 문제 유형 소분류	60
라.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한 최종 호소문제 유형 분류	72
마. 시사점 및 함의	77

V. 요약 및 논의 | 79

참고문헌 | 82

부록 | 89

1. 포커스그룹인터뷰 질문지	90
2. 전문가 델파이조사(1차) 질문지	99
2. 전문가 델파이조사(2차) 질문지	110

Abstract | 126

표 목차 |

표 1. 기존 문제유형 분류(CYS-Net 호소문제 중심)	14
표 2. 인터뷰 참여자 정보	25
표 3. 인터뷰 질문지	26
표 4. 문헌조사 및 CYS-Net 호소문제 분석 결과를 반영한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안)	26
표 5. 분석 대상자의 연도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31
표 6. 분석 대상자의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34
표 7.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가족갈등” 소분류	35
표 8.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자녀학대 및 방임” 소분류	35
표 9.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학교폭력” 소분류	36
표 10.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금품갈취 및 절도” 소분류	36
표 11.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음주 및 흡연” 소분류	36
표 12.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학업 관련 문제” 소분류	37
표 13.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학교생활 부적응” 소분류	38
표 14.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진로” 소분류	38
표 15.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성문제” 소분류	39
표 16.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성격문제” 소분류	39
표 17.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대인관계” 소분류	40
표 18.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내재화 문제” 소분류	41
표 19.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외현화 문제” 소분류	41
표 20.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미디어 중독” 소분류	42
표 21.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기타” 소분류	42
표 22. 신규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에 대한 범주 및 개념	44
표 23. 신규 청소년 문제 유형 소분류에 대한 범주 및 개념	46
표 24. 전문가 FGI 분석 결과를 반영한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안)	49
표 25. 대분류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52
표 26. 정신건강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54
표 27. 대인관계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55
표 28. 학업 및 진로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56
표 29. 학업 및 진로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56
표 30. 폭력피해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57
표 31. 폭력가해 및 비행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57

표 32. 성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58
표 33. 신체건강 및 경제적 결핍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59
표 34. 빈곤 및 경제적 결핍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60
표 35. 정신건강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61
표 36. 정신건강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62
표 37. 대인관계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63
표 38. 대인관계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64
표 39. 학업 및 진로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65
표 40. 학업 및 진로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65
표 41. 과의존/중독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66
표 42. 과의존/중독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66
표 43. 폭력피해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67
표 44. 폭력피해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67
표 45. 폭력가해 및 비행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68
표 46. 폭력가해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69
표 47. 성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69
표 48. 성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70
표 49.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70
표 50.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71
표 51. 빈곤 및 경제적 결핍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71
표 52. 빈곤 및 경제적 결핍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72
표 53. 최종 호소문제 유형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72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청소년기는 불안정한 아동기를 거쳐 성인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다(정승아, 안동현, 정윤경, 김윤영, 2008). 이들은 다양한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하고, 급격한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문제를 경험한다(진혜민, 배성우, 2012).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 가정 붕괴 등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학업부담, 학교폭력 증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청소년을 둘러싼 위기환경이 심각해짐에 따라 청소년문제는 다변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남윤주, 이숙, 2008; 김세연, 김재철, 2020). 우울 및 불안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고, 청소년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도박, 약물 등 문제행동이 다양해지고 있다(김세연, 김재철, 2020; 교육부, 202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5). 청소년 문제는 어느 사회나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의 주된 관심사이며,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주된 과제이다.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려면 당면한 청소년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가차원에서의 전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양미진, 이자영, 손재환, 2010; 김형수, 2017).

청소년 문제에 적절하고 체계적인 전문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청소년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김창대, 이명우, 1996; 김진숙, 강진구, 2000; 방현주, 정혜원, 2020). 청소년 문제는 규정하는 사람, 이론적 관점 등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며 이에 따라 대응방향도 달라진다(김창대, 이명우, 1995; 지승희 등, 2006).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제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문제행동, 위기(risk), 호소문제로 보는 관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진 비행이나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행동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문제행동은 비행이나 범죄를 지칭하기도 하지만(최미숙, 2014), 자살 및 자해와 같이 개인과 타인에 부정적인 결과를 끼치거나 자신의 건강, 성격,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기도 한다(김진화 등, 2002). 둘째,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 위기(risk)로 보는 관점이다. 위기는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이라고 정의된다(McWhiter et al, 2016). 이러한 위험에 처한(at risk) 위기청소년이란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은 물론 학교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청소년이다(황순길 외, 2016). 이 관점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는 위기상황, 즉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또래, 학교 등과 같은 위험요인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이처럼 문제를 문제행동과 위험요인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행동은 그 자체로 때로 위기상황을 더 가중시키는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범죄행동은 문제행동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다른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청소년 문제는 현재 드러나는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문제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까지 통합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행동이나 위험요인으로서의 정의는 일반청소년의 문제를 간과한 경향이 있다. 김창대 등(1995)은 위기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개념화하였는데,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과 부모가 '문제'로 지각하고 호소하는 청소년 호소문제로 개념화하였다(김진숙, 강진구, 2000). 이 관점은 청소년 상담관련 영역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였다는 긍정적인 있는 반면, 상담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나 잠재적인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김진숙, 강진구, 2000).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영역에서의 청소년 문제를 분류하는 바,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 호소문제로 개념화하고, 청소년이 자각하지 않는 문제행동이나 위기를 포함하고자 한다. 즉, 청소년 문제란 청소년이 호소하거나 드러난 문제행동, 또는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위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양해지고 중복되기도 한 청소년 문제를 유형화하고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세우기 위한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의 시도는 세 가지 접근이 대표적이다. 먼저, 진단적 접근은 정신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임상적 경험을 통해 문제를 분류함으로써(Achenbach, 1982; Quay, 1986) 증상의 형태에 기초하여 심리치료를 제공하도록 활용되었다(Kazdin, 1983). 대표적으로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체계를 들 수 있다. 이 진단적 접근은 다양한 문제를 구별하고 진단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극소수의 정형화된 진단범주에 속하여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를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다변량 분석 기법에 의한 접근은 요인분석이나 군집분석과 같은 고도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 문제유형 분류체계다. 이 접근은 한 개인의 문제를 여러 범주 가운데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밝힘으로써 개인을 여러

차원에서 폭넓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김광일, 1983; Hoghughi & Hoghughi, 1992). 그러나 이 접근은 통계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정도로 많은 빈도를 보이지 않는 행동들은 무시되며, 관련 없는 요소들이 통계적으로 묶이는 경우 설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접근이다. 기술적 접근은 특정한 이론에 근거하여 문제를 분류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 접근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한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청소년 문제를 인위적으로 어느 한 범주에 국한시키지 않고 제시된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구성하고자 하여 특정이론이나 전문가의 추론에 근거하지 않고 청소년이 경험한 문제들을 분류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술적 접근은 일반청소년의 전반적인 문제를 분류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은 1994년에서 2000년까지 국내 청소년의 문제 유형을 기술적 접근에 따라 체계화하였다. 최종적으로 김진숙과 강진구(2000)는 기술적 접근에 따라 청소년이나 부모가 경험한 호소문제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문제유형 분류 체계를 확정하였다. 이들은 실제 상담사례를 근거로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유목화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문제는 가족, 비행, 학업/학교 부적응, 진로, 성, 대인관계, 성격, 정신건강, 생활습관/태도, 기타상담, 단순정보제공 등 총 11개의 대분류 영역과 68개의 하위영역별 분류 영역으로 유형화되었다. 이 체계는 현재 전국 400여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종합상담시스템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 전산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전국 규모의 문제유형 통계자료를 확보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 체계가 2000년에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이후 사회적, 환경적 변화로 인한 청소년의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재 종합상담시스템인 CYS-net은 최근 청소년 문제유형을 반영하여 못하여 청소년 내담자들의 실질적인 상담 주제와 괴리가 있다. 이로 인해 전국단위 청소년 문제에 대한 통계자료임에도 실효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가깝게는 코로나에서부터 멀게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중독의 문제까지 청소년 문제는 2000년 이후로 급변하였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중독을 비롯하여 사이버 폭력,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 도박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박은경, 정원미, 전종설, 2019; 한숙희, 정희진, 조아미, 2020).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문제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다

(서미, 김지혜, 이태영, 김은하, 2019). 따라서 2000년 이후 급변한 청소년 문제 유형을 반영한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화된 청소년 문제유형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 상담개입을 위해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김진숙과 강진구(2000)에 제안에 따라 기술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를 분석하고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청소년문제유형분류는 현재 종합상담시스템 CYS-net을 개편하여 2023년부터 운영되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에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상담사례관리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10년 이후 청소년 문제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합상담시스템인 CYS-net의 청소년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실제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호소하는 문제유형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 대상으로 FGI를 실시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의 타당화를 위해 전문가 대상으로 델파이를 실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

가. 청소년 문제의 개념

청소년 문제는 문제를 규정하는 사람, 이론적 관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지승희 외, 2006). 청소년의 행동적 측면,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을 기준으로 문제가 규정되기도 하고, 청소년, 부모, 혹은 전문가들이 초점화하는 것을 ‘문제’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란 대개 해결되어야 할 어려움이나 힘든 상태를 말한다(김진숙, 강진구, 2000).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기술되기도 하고, ‘무엇이 부족한 상태’로 기술되기도 한다(Hoghughi & Hoghughi, 1992). 문제를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 또는 극단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과 상황 및 상태’로 규정하면, ‘문제’로 인해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느낄 수 있는 질서감, 가치관, 안녕감이 위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Hoghughi & Hoghughi, 1992; 김진숙, 강진구, 2000, 재인용). 따라서 청소년 문제의 정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문제를 정의할 때, 현재 드러나는 자살이나 자해를 문제로 정의할지, 자살이나 자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가정환경을 문제로 정의할지는 문제의 대응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살 등 현재 문제행동을 우선적으로 다룬다면 현재 드러나는 문제를 청소년 문제로 정의할 수 있지만,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요인을 다룬다면 문제의 귀인 방식이나 원인을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대응 방향에 따라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청소년 문제를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나 ‘충족되지 못한 상태’ 등의 현상을 토대로 규정할 수도 있고, 문제를 귀인하는 방식에 따라 문제를 규정할 수도 있다(김창대 외, 1995).

구체적으로 청소년 문제의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문제행동이라는 개념화되기도 한다. 청소년 문제행동은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진 비행이나 범죄를 표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김성봉, 2012). 넓은 의미로는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 전반 문제를 포괄하기도 하며, 좁은 의미로는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 행동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최미숙, 2014). 좁은 의미에서의 문제행동은 비행이나 범죄를 지칭하는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하고(김성봉, 2012), 성인의 범죄와 구분되는 청소년의 비행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김은경, 홍영호, 2006) 비행이나 일탈 행동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제안되어 있다. 이와 같은 좁은 의미의 문제행동은 자살이나 자해라는 문제행동을 포함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진화 등(2002)이 정의한 문제행동의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진화 등(2002)은 문제행동이란 일반적으로 법과 규범에 일탈적인 행동, 가치기준에서 미달되는 이상행동,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행동 등을 의미하며, 그 결과 개인과 타인에 부정적인 결과를 끼치거나 자신의 건강, 성격,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개념화하였다.

둘째,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위기(risk)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청소년 위기(risk)는 표출된 행동 문제와 함께 위험 요소로 개념화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발생원인인 위험요인에 초점화하여 개념화한다(양미진, 이자영, 손재환, 2010). 청소년의 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즉 가정, 또래, 학교 등에 초점을 둔 원인적 접근으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청소년 위기’ 보다는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는데(황순길 외, 2016) 이는 위기라는 개념에 원인적 접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McWhiter 등(2004)은 위기(at risk)를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황순길 외, 2016, 재인용). 예를 들어 어릴 때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의 경험을 한 청소년은 자살이나 자해의 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

위기청소년 개념의 시작은 청소년들의 학업 중도 탈락 가능성을 낮추고 미국의 교육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위원회 보고서이다(이봉주, 김동일, 정익중, 유순덕, 2008). 즉, 학교에서 실패하여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성공적인 이행이 어렵고,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으로 정의내리기도 한다(김형수, 2017). 비슷하게 OECD(1995)에서는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을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 복지지원법(법제처, 2005)에 따르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 중 비행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처럼 위기 청소년이란 일련의 개인·환경적 요인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

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할 수 있다(구본용 외, 2005). 이와 비슷하게 황순길 등(2016)은 위기청소년이란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적절한 개입 없이 정상적인 발달은 물론 학교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청소년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위기 청소년을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요인을 주로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와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강근모, 이준기, 2015; 김보영, 이정숙, 2009; 오승환, 2010; 이상균, 2000; 전영천, 2010; 정묘순, 서수균, 2014; 진혜민, 배성우, 2012; 황혜원, 박현순, 신정어, 2006; Masten, Karin, & Garnezy, 1990).

주목할 것은, 청소년 문제행동과 위험요인을 구분하여 문제를 개념화하기도 하지만 실제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지승희 등(2006)은 위기를 유발하는 위험요소에 문제행동 영역을 포함하였다. 그는 가출, 무단결석, 폭력(가해, 피해), 가정폭력(가해, 피해), 집단따돌림, 괴롭힘, 자살시도, 인터넷 중독 및 게임과다, 절도 및 갈취, 성매매, 성폭력, 습관적인 음주 흡연, 약물 등으로 문제행동을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청소년의 일탈 및 비행행동으로 문제행동 자체가 위기상황을 더 가중시키는 위험이 되기도 한다. 위기란 상황에 변화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거나 약화되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때(Burt, 1992; 양미진 외, 2010) 문제행동은 현재 드러나는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는 현재 드러나는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문제를 유발하는 위험요인까지 포괄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념이 다소 위기청소년이나 문제행동을 가진 청소년과 관련된 것이라면, 김창대 외(1995)의 개념은 소위 일반청소년까지 포함하였다. 김창대 외(1995)에 따르면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들과 부모가 ‘문제’로 지각하고 호소하는 바인 청소년 호소문제로 개념화할 수 있다(김진숙, 강진구, 2000). 이들은 특정한 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이 호소하는 문제, 부모가 호소하는 문제 등 현상 중심의 문제로 청소년 문제를 개념화하였다. 위기청소년을 비롯한 청소년들은 발달단계상에서 다양한 문제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와 스트레스가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였을 때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며, 나아가 건강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이 접근은 청소년이 스스로 지각하고 호소하는 문제에 초점을 둬으로써 상담, 교육, 교정시설 등과 같은 청소년 상담관련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한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상담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문제나 잠재적인 문제로 발달할 수 있는

위기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김진숙, 강진구, 2000).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영역에서의 청소년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이나 부모가 지각하는 청소년 호소문제로 청소년 문제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다만, 청소년상담에서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바, 청소년이 스스로 지각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드러나는 문제행동이나 문제를 유발하는 위험요인도 청소년 문제로 포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이 호소하거나 드러난 문제행동, 또는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위기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의 필요성

상담이나 교육장면에서 청소년들에게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분류하고, 이에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다.

김창대 등(1995)은 청소년 상담영역에서 문제유형분류 체계의 기능과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문제유형분류체계는 전문가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둘째,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증후군, 관련 행동 정보, 예후, 문제해결 방법 및 치료법)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셋째,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어갈 것인지, 또는 사라져갈 것인지와 같은 문제의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문제의 원인, 병리, 예후,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에 대한 반응 등과 관련된 이론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본개념을 제공한다. 다섯째, 어느 지역의 문제에 관한 자료, 빈도 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성인의 정신건강문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특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미 사용해 본 방법들이나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일곱 번째, 분류하는 일 자체는 분류체계에 내포된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덟 번째,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문제의 특성이나 임상병리를 가르치는 데 중요한 도구이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명명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요약하면, 문제유형분류체계는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내담자와도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한다. 나아가 청소년 문제의 원인, 증상, 개입전략, 예후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 체계 유형

청소년의 문제를 분류하고 각 문제에 대한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구상하려는 시도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문제를 분류하는 방식은 분류의 기준, 분류 방법, 분류체계가 포괄하는 문제의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청소년과 아동의 문제를 분류하는 체계는 크게 진단적 접근, 다변량분석을 이용한 접근, 기술적 접근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진단적 접근(Diagnosis Approach)

진단적 접근은 정신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임상적 경험에서 시작된 것으로(Achenbach, 1982; Quay, 1986) 청소년의 문제를 분류하는데 가장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체계 중 하나로 보고된다. 특히 이 접근은 병인보다는 증상의 형태에 기초하여 심리 치료 분야에서 유용하게 다뤄져 왔다(Kazdin, 1983). 진단적 접근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체계를 들 수 있다. DSM 체계는 증상의 형태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류하고 진단하는데 다축적인 접근을 채택하고 있어 심리적, 행동적 문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DSM 외에도 청소년 문제를 분류하는 진단적 접근으로서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체계는 세계보건 기구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장애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통합하는데 있어 전적으로 임상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DSM 체계와 유사하나 DSM에서 포함하는 축의 종류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러한 진단적 접근들은 임상 장면에서 여러가지 장점을 보이며 유용성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광범위한 장애와 조건들을 포괄하고 있어 청소년 다양한 문제를 구별하여 진단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장애와 조건들을 기술하는 언어체계가 고도로 발달되고 구체화되어 있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이 체계는 여러 문화권에서 임상가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어 각 문화권에서 사용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다방면으로 수용하여 개선하는 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진단적 접근 체계는 일반 상담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경험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된다(Gresham & Gansle, 1992). 이 접근은 원인은 배제하고 증상만을 가지고 진단 내리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특수성이나 정신역동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중복 진단의 가능성이 높다. 둘째, 청소년의 문제를 분류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발달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사용된 언어들에 진단적이어서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아

닌 경우에도 병리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극소수의 경우에만 전형화된 진단범주에 부합하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혼합된 증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한 범주에 넣기가 어렵다(Tanguay, 1984).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학적인 관점에서 정상과 이상이라는 진단적 접근보다는 발달적 특징과 그것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들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김병석, 이명우, 명대정, 이명경, 1998).

2) 다변량 분석기법에 의한 접근(Multivariate Approach)

다변량 분석기법을 이용한 접근은 임상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요인분석이나 군집 분석과 같은 고도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한 문제유형 분류체계이다. 이 방법은 진단적 방법의 범주적 접근의 단점을 보완하는 분류체계로서, 한 개인의 장애가 어느 한 범주에 속한다기보다는 장애의 차원이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따라서 한 개인의 행동과 증상의 정도를 몇 가지 차원을 가지고 평가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장애를 갖는다고 가정한다(Lorr, 1961).

다변량 분석기법 접근을 활용한 Achenbach와 Edelbrock(1986)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수집하고 목록화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급 통계방식을 사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8개의 요인(비사회적 공격적 행동장애, 사회화된 형태의 공격적 행동장애, 주의력결핍장애, 불안/위축/불행감, 정신분열성, 사회적 부적절함, 정신병적인 장애, 과잉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도 Lavik(1973), Hewitt와 Jenkins(1946) 등이 이 접근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분류하였다.

다변량 분석기법을 이용한 접근은 한 개인의 문제를 여러 범주 가운데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밝히고 그에 따라 개인의 문제를 명명하는 진단적 접근과는 달리 한 개인을 여러 차원에서 폭넓게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김광일, 1983; Hoghughi & Hoghughi, 1992). 즉, 이 접근은 행동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 각 행동차원에서 한 개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한 점수에 따라 프로파일을 구성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Hooper, Hynd, & Mattison, 1992). 또한 이 접근은 임상가들이 반복적으로 관찰한 행동과 조건들을 보여주고 있어 실제로 존재하고 관찰된 행동을 기초로 문제를 분류한다(Hoghughi & Hoghughi, 1992). 그러나 이 접근은 기술적 기법들을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으로 문제를 분류하기 때문에 통계 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정도로 많은 빈도를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절차에서 무시된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이나 빈도를 보이지 않는 문제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또한 어떤 형

태의 이론이나 치료적 개입과는 관련이 없어서 한 개인이 일련의 행동차원에 속한다고 해도 그 어떤 방식의 치료적 접근과 관련지어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김광일, 1983). 마지막으로 이 접근을 통한 문제유형 분류는 통계적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 없는 요소들이 통계적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으며, 사용하는 통계방법에 따라 그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3) 기술적 접근(Descriptive Approach)

기술적 접근은 특정한 이론에 근거하여 문제를 분류하고 설명하기보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기술적 접근은 증상 위주의 진단이나 문제행동 요인의 통계처리를 통한 분류체계의 대안적 접근으로(Hoghughi & Hoghughi, 1992), 대부분의 청소년 내담자들이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한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문제를 인위적으로 어느 한 범주에 국한시키지 않고 제시된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이 접근에서는 청소년의 문제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가정이나 부모의 문제와 같은 주변 환경적 문제도 문제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기술적 접근을 적용한 문제분류체계 중 하나로서 문제프로파일접근(Problem Profile Approach: PPA)은 청소년 문제의 한 측면만을 부각시키지 않고 전체적인 모습 혹은 윤곽을 제시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Hoghughi 등(1992)은 청소년 문제를 평가하는데 있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 외에도 청소년과 밀접한 비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정 이론이나 전문가의 추론에 근거하지 않고 청소년이 경험하거나 제시하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포괄한 6개의 주요 범주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신체적 문제(Physical Problems), 지적/교육적 문제(Intellectual and Education Problems), 가정과 가족문제(Home and Family problems), 사회적 기술문제(Social Skills Problems),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 심리적 문제(Psychological Problems)가 포함된다. 문제프로파일접근은 청소년의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 외에 일반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분류하는데 유용하며, 대체로 일상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 혹은 준전문가들에게도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사용될 수 있다(김병석, 이명우, 명대정, 이명경, 1998). 또한 주요 문제영역의 하위마다 기타란을 두어 필요에 따라 문제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비교적 개방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프로파일접근은 문제의 기술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여 분류체계의 신뢰도와 타당도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의 적용성에 대

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보인다.

라. 국내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 현황

국내 청소년 문제 유형에 대한 분류는 주로 진단적 접근방법인 DSM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방식은 주로 심리치료 분야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으며, 특히 정신병리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DSM체계는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도의 임상적 치료를 위해서는 적합할 수 있으나, 실제 상담을 찾는 청소년의 문제를 포괄하여 사용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김창대 외, 1995). 이 체계들은 지나치게 정신병리적 관점에 치우쳐 청소년의 발달이나 상황적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적응 문제나 발달상의 과도기적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상담을 통하여 개입할 수 있는 문제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Gresham & Gansle, 1992). 이러한 한계점에 따라 국내 청소년에게 적합한 청소년 문제 유형분류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1994년부터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김병석 외, 1998; 김진숙, 이명우, 송수민, 1999; 김진숙, 강진구, 2000; 김창대, 이명우, 1995; 박재황, 김창대, 김동일, 이명우, 박승민, 1996).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문제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는 1994년부터 시작하여 1997년까지 문제유형분류의 틀을 마련하고 이후 사례에 적용하면서 그 타당성을 확보해 나갔으며, 2000년에는 활용지침까지 마련하였다(김진숙, 강진구, 2000). 특히 2000년에 수행된 김진숙과 강진구(2000)의 연구에서는 기술적 접근을 바탕으로 청소년이나 학부모가 제시하는 호소문제를 중점적으로 문제유형 분류 체계를 수정·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가족, 비행, 학업/학교 부적응, 진로, 성, 대인관계, 성격, 정신건강, 생활습관/태도, 기타상담, 단순정보제공 등 총 11개의 대분류 영역과 68개의 하위영역별 분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11개의 대분류와 하위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 범주는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관계적, 환경적 문제 등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것으로 부모/자녀 관계문제, 부모간의 갈등/폭력, 부모의 자녀학대/방치 등이 있다. ‘비행’의 범주는 청소년의 경미한 일탈행위에서 범죄행위까지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출, 폭력, 금품갈취/절도, 성관련 비행, 음주/흡연, 약물오남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학업/학교부적응’은 학업태도나 학업수행, 학교 적응과 관련된

문제로서 학업태도/학습흥미, 주의산만/집중력부족,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등이 있다. ‘진로’ 문제는 진학, 취업 등 진로정보나 진로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진로정보 부족이나 진로결정 및 갈등 외에도 진로의식부족, 직장적응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성’ 범주에서는 성지식이나 정보, 성충동 조절 등 성과 관련된 문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성지식/정보 부족, 성충동조절 성추행/폭행 피해 등이 있다. ‘대인관계’ 범주는 또래, 이성, 성인 등 가족 외 대인관계에서 겪는 문제로 따돌림, 친구관계, 이성교제 등이 있다. ‘성격’ 범주는 성격에 대한 불만이나 성격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로서 소극적/과민한 성격, 충동적/공격적 성격 등이 포함된다. ‘정신건강’ 범주에서는 우울/무기력, 불안, 강박적 사고/행동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습관/태도’에서는 일상생활의 습관 및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컴퓨터/인터넷 과다사용, 약속위반/태만한 생활 등이 내용이 있다. 이외 상담 내용 중 상담내용이 있는 경우 ‘기타상담’으로, 상담예약이나 타 상담기관 문의 및 의뢰 등의 경우 ‘단순정보제공’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개발한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는 실제 상담사례를 근거로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유목화 및 개념화함으로써 상담목표의 설정과 개입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된다(김진숙, 강진구, 2000). 특히 이 체계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일원화된 문제유형 분류체계 확보를 위해 ‘종합상담시스템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이라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관적인 문제유형 분류 체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국 규모의 통계자료를 확보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CYS-Net이 청소년 관련 환경 변화 대응과 복잡하고 심화되는 청소년 문제에 다각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CYS-Net 시스템 내 청소년 문제 유형의 종류도 증가하게 되었다. 2022년 현재 CYS-Net 내 청소년 문제 유형은 10가지의 대분류(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문제,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외모, 컴퓨터인터넷 사용, 기타 등)와 67가지의 소분류(스마트폰 과다, 부모와의 갈등, 친구관계, 이성교제, 학교폭력, 등교거부, 학업 흥미 부족, 시험불안, 검정고시 등)로 구분되어 있다. CYS-Net 시스템 내 청소년 문제 유형은 <표 1>과 같다.

표 1. 기존 문제유형 분류(CYS-Net 호소문제 중심)

대분류	소분류
1. 가족	부모자녀간의 갈등
	부모외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부모간의 갈등/폭력
	부모의 자녀학대/방치
	자녀의 패륜행위
2. 일탈 및 비행	가출
	학교폭력
	학교외 폭력
	금품갈취/절도/도벽
	음주/흡연/약물오남용
	늦은귀가/잦은외박
	비행친구와 어울림
3. 학업/진로	학업흥미/학업동기 부족
	학습능력 부족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학교생활 부적응
	등교거부
	해외/귀국 청소년 부적응
	진로의식부족
	진로정보탐색
	진로변경 및 전환
	검정고시

대분류	소분류
4. 성	성지식/정보부족
	성욕구/성충독(자위행위)
	임신/피임
	낙태
	성폭력/성희롱
	근친
	음란물
	이상성행동
	성병
	성정체감
	성매매(성매수)
	자녀의 성교육
	5. 성격
충동적/공격적 성격	
의존적/우유부단한 성격	
자기중심적/독단적 성격	
완벽성향/경직된 성격	
6. 대인관계	따돌림 및 왕따
	친구관계
	이성교제
	교사와의 관계
	부모외 어른과의 관계

대분류	소분류
7. 정신건강	우울/위축
	강박/불안
	반항성 및 품행성문제
	충동(분노)조절 문제
	자해
	자살문제
	섭식문제
	수면문제
	주의산만 및 과잉행동
	신체화문제
	발달문제
	정신분열 및 정신증적 문제
8. 생활습관/외모	나태한 생활
	소비생활 문제
	외무불만족
9. 컴퓨터/인터넷 사용	인터넷 게임 과다
	인터넷 채팅 과다
	인터넷 쇼핑 과다
	인터넷 음란물 과다
	사이버 범죄
	스마트폰 과다

CYS-Net 시스템 내 청소년 문제 유형은 초기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 이후 별도의 수정 없이 각 대분류에 따른 신규 청소년 문제를 소분류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다. 이에 따라 CYS-Net 상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는 현재 청소년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대분류와 소분류의 관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예: 대분류: 가족-소분류: 자녀의 패륜행위, 대분류: 일탈 및 비행-소분류: 늦은 귀가/잡은 외박, 대분류: 학업/진로-소분류: 검정고시, 대분류: 생활습관-소분류: 나태한 생활, 대분류: 컴퓨터/인터넷 사용-소분류: 사이버 범죄 등)가 나타났다.

더불어 앞서 개발된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 체계는 2000년에 마지막으로 연구가 진행

되면서 이후의 사회적, 환경적 변화로 인한 청소년 문제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학교밖청소년, 가정밖청소년이 증가했고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및 확산으로 인한 중독문제, 사이버폭력, 온라인도박, 디지털 성폭력 등의 문제나 사회적 고립이나 자립 등 청소년 위기 문제가 심화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남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의 청소년 문제의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제 유형 분류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2000년 이후 청소년 문제 동향

청소년 문제는 사회와 문화권의 관습과 가치 및 시대 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문제가 발생하기도, 기존에 문제로 규정되었던 것이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 체계가 개발된 2000년을 이후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대한 변화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유형 분류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가.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률이 급증하였다. 이로 인한 이를 둘러싼 각종 역기능적 폐해나 문제점들도 동시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 중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과 몰입으로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스마트폰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는 등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김병년, 2013).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자 중 24.2%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청소년(만 10~19세)이 37%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신규 매체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집중적으로 몰두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에 더욱 취약한 특징을 보인다(김동일 외, 2012; 김정현, 정인경, 2015). 또한 SNS 댓글이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에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더 민감해지기 쉽고, 이성적 사고나 감정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의 발달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워 과의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

신부한국정보 화진홍원스마트쉽센터, 2019).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도덕성과 가치관, 행동들을 경험하고 습득하게 되므로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이들의 가치관, 심리적, 정서적, 행동양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위축, 신체 증상,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충동성,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서창민 외, 2012; 이어리, 이강이, 2012; 이혜선, 강차연, 2007; 장성화, 조경덕, 2010).

나.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서(Willard, 200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통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알림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사이버폭력은 초고속 통신망이 보급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PC를 통한 사이버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0년 이후 휴대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사이버폭력은 신체적 폭행, 집단따돌림 등과 같은 기존의 학교폭력 양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채팅 서비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결망에서 사이버불링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이창호, 이경상, 2013),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타인의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 유포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명 ‘도촬’ (몰래 촬영하는 것)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조희정, 2014).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매체 특성상 전송이나 복사가 용이하고(정철호, 2009)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용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소지를 지니고 있다. 즉, 직접적으로 글을 올리진 않더라도 해당 내용을 퍼나르거나 링크를 것만으로도 내용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이 지니는 위험성이 더 커진다(정여주, 두경희, 2014). 또한 사이버 공간에 올려진 내용은 누군가가 저장한다면 언제든 다시 공론화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이버폭력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이버폭력은 신체적폭행 등의 학교폭력만큼이나 피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승현 등(2015)의 연구에서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들의 6%가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4.4%는 자살 혹은 자해 생각을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Hinduja와 Patchin(2010)의 연구에서도 사이버불링 피해가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는 점, 은밀히 이뤄지는 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관련 연구들에서 사이버폭력이 청소년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폭력가해에도 이어진다고 보고되었다(이창호 외, 2014; 정문경, 2015; 조운오, 2013; Hinduja & Patchin, 2008, 2010; Schneider, O' Donnell, Stueve, & Coulter, 2012).

다.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매체가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삶이 유익하게 변화되었지만, 그만큼 인터넷을 통한 유해한 환경이 조성되어 각종 범죄가 용이해졌다. 그 중 디지털성폭력은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일명 n번방 혹은 박사방 사건)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더욱이 여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행하는 성폭력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괴롭힘을 포함한 성적 괴롭힘(online sexual harassment), 단독방 성희롱과 성적 허위사실 유포, 신체 사진이나 성기 사진 등을 이용한 이미지 활용 디지털 성폭력,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지인합성능욕, 비동의 촬영과 비동의 유포, 온라인 그루밍(digital grooming) 등이 포함된다(김경희, 김수아, 김은경, 2020; 김애라, 조영주, 문희영, 2020). 디지털성폭력의 경우 대면 상황과는 다른 종류의 피해 특성을 드러내며(김정혜, 2020), 온라인 유통 특성으로 인해 전파력이 빠르고 영구삭제가 거의 불가능해 피해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크다는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권미경, 2019).

특히나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방송통신위원회, 2021)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발달상 정서적, 환경적으로 취약한 특성으로 성범죄의 지속성이 더욱 두드러진다(한숙희, 정희진, 조아미, 2020). 특히나 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

여 길들이는 방식의 디지털 그루밍(digital grooming)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김지영(2020)의 연구에서 온라인 그루밍 집단에서 16세 이상이 45.5%, 13~15세가 42.7%, 7~12세 1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디지털 그루밍 피해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루밍으로 인해 가해자와 친밀감을 쌓은 청소년은 가해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피해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오세연, 신현주, 2019)하기도 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위험수준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라. 도박행동

국내에서 청소년 도박에 관한 연구는 2004년에 시작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해 아직 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박은경, 정원미, 전종철, 2019). 그러나 2018년 실시한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평생 동안 돈내기 게임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7.8%로, 2015년도 조사 대비 5.7% 상승하였으며, 이들 중 불법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로, 2018년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 5.3%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 청소년 도박문제는 청소년 본인과 주변 사람, 지역사회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지속적인 도박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통제력의 장애, 심리적 의존, 도박에 사용하는 시간과 금액의 증가, 도박 시 불안하거나 예민해짐, 돈과 관련된 거짓말이 늘어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7). 문제성·병적 도박자의 약 70%가 20세 이전에 도박을 시작했고 그 중 32%는 15세 이전에 시작했다는 점을 볼 때(이민규, 김교현, 김정남, 2003), 청소년기에 도박경험이나 도박문제를 갖게 될 경우에는 이후 성인기까지 도박문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Winters, Stinchfield, Botzet, & Anderson, 2002).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휴대전화, 양방향 텔레비전 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도박이 나타나고 있으며, 게임과 유사한 형태가 청소년의 도박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Calado, Filipa, Alexandre, & Griffiths, 2017).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 불법도박에 관한 광고·홍보글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으며, 여러 온라인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 구입이나 아이템 조합을 통해 우연에 기대어 아이템을 획득하도록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도박 경험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소년은 초기에 재미 삼아 도박을 시작하지만 심리적 불안이 높아 점차 중독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시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로 도박을 한 청소년들이 도박으로 인한 죄책감이나 수치심 등의 부정적 감정, 사회적 관계 문제, 일상생활 적응의 어려움, 학교부적응 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우울이나 자살시도와 같은 정신건강문제나 담배 등 다른 중독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aisamo, Halme, Murto, & Lintonen, 2013). 또한 도박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가 붕괴되기도 하며, 이전의 친구관계가 도박관련 모임으로 대체되고,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Splevins, Mireskandari, Clayton, & Blaszczyński, 2010). 이외에도 청소년의 도박문제는 비행이나 범죄, 무단결석이나 학업저하 등 학교관련 문제, 경제적 문제를 일으켜(Gupta & Derevensky, 2000), 전반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 사회적 고립

최근 사회적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방안에 틀어박혀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통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양적, 질적 측면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Grenade & Boldy, 2008). 은둔형 외톨이는 1990년대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용어가 파생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초에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적응 연구가 처음 진행되었으며(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2005년 청소년 위원회에서 한국형 히키코모리를 ‘은둔형 외톨이’ 라고 정의하였다. 이지민과 김영근(2021)의 연구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들은 청소년기 다양한 관계에서 상처를 경험하면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는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은둔 경험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는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로 이어지고, 현실의 복잡한 문제에 관한 생각을 멈추기 위해 스마트폰 의존으로 이어지는 문제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삶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Havens 등(2001)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우울증이 인지기능을 저하시킴을 밝혔으며, 특히, 청소년기의 지속적인 사회적 고립은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과 낮은 수준의 자아존

중감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all-Lande, 2011),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은 자살 시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Joiner, 2005). 최근에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단절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이나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 시사점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 청소년 문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 문제를 위기청소년이나 문제행동을 가진 청소년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으나 김창대 등(1994)은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의 호소문제로 개념화하여 일반청소년까지 포함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은 발달단계상에서 다양한 문제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와 스트레스가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였을 때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며, 나아가 건강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스스로 지각하고 호소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상담, 교육, 교정시설 등과 같은 청소년 상담관련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돕는다.

이에 따라 청소년상담원에서는 실제 청소년 상담사례를 근거로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유목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문제를 가족, 비행, 학업/학교 부적응, 진로, 성, 대인관계, 성격, 정신건강, 생활습관/태도, 기타상담, 단순정보제공 등 총 11개의 대분류 영역과 68개의 하위영역별 분류 영역으로 유형화하였다. 이 체계는 현재 전국 400여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종합상담시스템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 전산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전국 규모의 문제유형 통계자료를 확보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 체계가 개발된 2000년 이후 사회적, 환경적 변화로 인한 다양한 청소년의 문제들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과의존과 중독을 비롯한 사이버폭력, 디지털성폭력, 사이버도박 등의 문제로 이어졌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박은경, 정원미, 전종설, 2019; 한숙희, 정희진, 조아미, 2020), 코로나 19로 인해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이러한 현실은 최근의 청소년 문제 유형을 반영한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 체계가 새롭게 개발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의 청소년 문제 관련 문헌연구 및 청소년종합상담 시스템(CYS-Net) 호소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와 전문가 델파이조사 과정을 통해 다변화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개입을 위한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발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호소문제 분석

가. 분석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청소년 문제의 변화양상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CYS-Net에 입력된 전체 자료 중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등 총 6개년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6개년 자료의 전체 대상 964,056명 중 학부모, 성인, 저연령 아동과 결측값을 제외한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786,938명이 최종 분석대상이다.

기존 CYS-Net의 문제유형(대분류 10개, 소분류 67)은 대분류와 소분류의 관계가 적합하지 않거나 현재 청소년 문제를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행연구 검토 후 전체 연구진의 합의를 통해 기존 대분류를 16개로 소분류를 52개로 재분류 하였다.

2.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현장 및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이 신규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 개발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설명 후 동의를 구하였으며,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수집된 음성파일과 전사본은 연구종료 5년 후 폐기됨을 안내하였다.

가. 참여대상

본 인터뷰는 교육학 및 사회복지학 박사인 학계전문가 3명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쉼터에서 부장이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3명

을 대상으로 총 2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현장 및 학계전문가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2와 같다.

표 2. 인터뷰 참여자 정보

구분	대상자	성별	기관유형/직위	전공	학력
1	학계전문가	여	OO대학교/교수	교육학	박사졸업
2	학계전문가	여	OO대학교/교수	사회복지학	박사졸업
3	학계전문가	여	OO연구원/선임 연구위원	사회복지학	박사졸업
4	현장전문가	여	OO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장	교육학	석사졸업
5	현장전문가	여	OO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팀장	교육학	석사졸업
6	현장전문가	여	OO청소년쉼터/소장	사회복지학	박사졸업

나. 인터뷰 기간 및 방법

본 인터뷰는 2022년 8월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총 2회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진행 전 인터뷰에 대한 안내와 질문지를 먼저 이메일로 발송하여 인터뷰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그룹별 2~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다. 인터뷰 도구 및 내용

인터뷰 질문지는 청소년상담 및 관련 연구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학 박사 1인, 사회복지학 박사 1인, 사회복지전공 박사수로 1인, 상담전공 석사 1인에 의해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 수집→ 질문 초안 작성→ 질문 초안 검토→ 질문지 작성’의 절차(김성재 외, 2007)에 따라 구성되었다. 질문지의 세부형태는 Krueger와 Casey(2000)의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요질문, 마무리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 문제 유형에 대한 문헌조사 및 CYS-Net 호소문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합의를 통해 개발된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안)에 대한 의견 및 제안점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최종 확정된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3과 같다. 인터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황에 맞게 추가질문 등을 하면서 도출된 의견의 맥락을 파악하였다.

표 3. 인터뷰 질문지

구분	내용
도입질문	• 참여자 소개
전환질문	• 신규 문제 유형 분류가 어떻게 구성되면 좋을지에 대한 전반적 의견
주요질문	• 신규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구성에 대한 의견 • 신규 청소년 문제 유형 중분류 및 소분류 구성에 대한 의견
마무리질문	• 추가 의견이나 제언

표 4. 문헌조사 및 CYS-Net 호소문제 분석 결과를 반영한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폭력피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방임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사이버폭력 제외)	
2. 폭력가해 및 비행	지위비행	흡연/음주
	경비행	단순 가출
		성인사이트
		무단결석
	중비행	폭력
		금품갈취/절도
		사기(사이버 포함)
환각물질 사용		
3. 성	성건강 및 신체구조	성병/에이즈
		성지식
	성적충동/성욕구	자위행동
		성관계
		이상성행동
	임신/출산/낙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성역할/성차별(양성평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4. 정신건강	자살·자해(자기손상)	자살사고
		자살시도(자살계획)
		비자살적 자해
	우울	우울(위축)
	불안/강박	불안
		공포
		공황
		강박
	폭행 및 공격행동	폭행
		반항
		공격행동
		분노조절
	외상 후 스트레스	
	사고문제	정신증
		편집증
	신체화문제	망상
		건강염려
	발달문제	섭식
		경계선 지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5. 신체건강		
6. 대인관계	무연(무관계)	고립
		관계단절
	또래관계	
	연인관계	
	교사(학교, 학원등)관계	
	가족관계	부모자녀와의 갈등
		부모 간 갈등
부모 외 다른 구성원과의 갈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온라인상 관계	
7. 과의존·중독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SNS
		쇼핑
		음란물
	도박	
8. 학업 및 진로	학업(성적)	
	학교생활	
	진학(상위교육 진학)	
	진로탐색(진로의식)	
	진로역량(자격/훈련)	
	진로변경	
	취·창업준비	
9. 빈곤 및 경제적 결핍	경제적 빈곤(요금)	물질적 결핍
		교육적 결핍
	주거 빈곤	
	노숙	

라. 분석 방법

인터뷰 시작 전 녹음에 대한 동의 후 녹음을 진행하고, 인터뷰 종료 후 녹취록을 작성하여 내용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방법(박성희, 2004)에 따라 먼저 의미에 맞는 주제별로 연관성을 탐색하여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명명화 작업을 실시하였고, 개별 분석한 내용은 연구진 합의를 거쳐 재범주화 하였다.

3. 전문가 델파이조사

본 조사는 청소년 호소문제 유형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CYS-Net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쉼터 행정망이 통합됨에 따라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인 개입과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청소년 문제유형을 재정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델파이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진은 델파이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호소문제의 다년간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청취한 후, 연구진들 간의 논의를 통해 호소문제 유형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진의 호소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는데, 하나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유형의 분류가 타당한지, 다른 하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호소문제 유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입력 및 관리가 가능한지 등이었다. 이는 본 호소문제 유형분류가 향후 실제적인 통합사례관리 데이터베이스의 호소문제 유형분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9월부터 11월까지 현장전문가와 학계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이 장은 델파이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현장전문가와 학계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현장전문가는 상담, 쉼터, 꿈드림 학교 밖 지원센터 등 3곳의 현장전문가들이었고, 학계전문가는 청소년 분야의 교육복지 전문가들이었다. 내부 연구진의 전문가 추천에 의해 20명이 결정되었다. 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2022년 9월~11월 사이 이루어졌다.

나. 조사방법

이 연구는 설문지 구성을 위하여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 첫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호소문제의 변화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살펴본 후, 둘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호소문제 유형을 분류하였다. 셋째, 전문가 FGI를 시행하여 본 연구진의 호소문제 유형 분류 결과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

보완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연구진은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표를 만들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델파이를 시행하였다.

다. 분석방법

델파이 조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두 가지 참고지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해당 영역 및 지표의 타당성 문항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5점 척도(1점: 전혀 타당하지 않음 ~ 5점: 매우 타당함)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하여 전문가들이 해당 내용의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는 Lawshe(1975)가 제안한 CVR(Content Validity Ratio)이다. 이 연구는 Ayre와 Scally(2014)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20명의 CVR을 기준을 .5 이상으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참고지표는 합의도와 수렴도로 합의도는 .75이상의 값을 가질 때, 수렴도는 0~.5의 값을 가질 때 긍정적 합의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IV. 분석 결과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호소문제 분석 결과

가. 연도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청소년 학교 재학 상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전체 분석 대상자 786,938명 중 2015년이 186,74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 155,148명, 2019년 117,138명, 2011년 112,985명, 2017년 111,736명, 2021년 103,18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2011년이 남자 청소년 61,840명(54.7%), 여자 청소년 51,145명(45.3%)으로 전체 연도 중 남녀의 차이가 9.4%로 가장 많았고 다른 연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대상자의 연령은 중고등학교 연령인 12세부터 17세까지가 전체 대상자의 60%~70%로 가장 많았다. 특이한 점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CYS-Net에 입력된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9세부터 12세인 저연령 청소년은 지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청소년 연령에서 다른 연도와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는 시기인 2021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도별 재학상태에서는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응답한 인원이 가장 많았고 학업중단 청소년, 고졸 후 무직 청소년, 학업중단 근로 청소년, 미취학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분석 대상자의 연도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총 사례 수	786,938						
성별	소계	112,985(100)	155,148(100)	186,749(100)	111,736(100)	117,138(100)	103,182(100)
	남성 수(%)	61,840(54.7)	81,052(52.2)	93,883(50.3)	56,567(50.6)	56,685(48.4)	49,695(48.2)
	여성 수(%)	51,145(45.3)	74,096(47.8)	92,866(49.7)	55,169(49.4)	60,453(51.6)	53,487(51.8)
연령	소계	112,985(100)	155,148(100)	186,749(100)	111,736(100)	117,138(100)	103,182(100)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9세	5,195(4.6)	8,346(5.4)	15,483(8.3)	11,604(10.4)	11,843(10.1)	12,143(11.8)
	10세	7,132(6.3)	10,615(6.8)	15,075(8.1)	8,397(7.5)	11,087(9.5)	10,011(9.7)
	11세	7,491(6.6)	12,762(8.2)	15,042(8.1)	8,178(7.3)	10,667(9.1)	8,264(8.0)
	12세	13,208(11.7)	21,782(14.0)	28,736(15.4)	17,302(15.5)	19,051(16.3)	18,119(17.6)
	13세	15,109(13.4)	19,038(12.3)	19,821(10.6)	11,368(10.2)	11,550(9.9)	10,357(10.0)
	14세	17,511(15.5)	19,537(12.6)	22,223(11.9)	10,793(9.7)	11,332(9.7)	8,260(8.0)
	15세	19,116(16.9)	23,797(15.3)	30,831(16.5)	17,217(15.4)	16,827(14.4)	13,160(12.8)
	16세	14,262(12.6)	20,062(12.9)	19,488(10.4)	12,694(11.4)	10,815(9.2)	9,050(8.8)
	17세	8,198(7.3)	12,348(8.0)	11,919(6.4)	7,811(7.0)	7,150(6.1)	6,358(6.2)
	18세	2,521(2.2)	3,301(2.1)	3,411(1.8)	2,372(2.1)	2,752(2.3)	2,471(2.4)
	19세	1,300(1.2)	1,250(0.8)	1,720(0.9)	1,333(1.2)	1,207(1.0)	1,511(1.5)
	20세	775(0.7)	930(0.6)	1,262(0.7)	1,053(0.9)	1,103(0.9)	1,150(1.1)
	21세	487(0.4)	532(0.3)	794(0.4)	802(0.7)	796(0.7)	922(0.9)
	22세	335(0.3)	408(0.3)	513(0.3)	569(0.5)	658(0.6)	886(0.9)
23세	219(0.2)	260(0.2)	316(0.2)	181(0.2)	239(0.2)	395(0.4)	
24세	126(0.1)	180(0.1)	115(0.1)	62(0.1)	61(0.1)	125(0.1)	
재학 상태	소계	112,985(100)	155,148(100)	186,749(100)	111,736(100)	117,138(100)	103,182(100)
	미취학 청소년	96(0.1)	92(0)	41(0)	46(0)	55(0)	44(0)
	재학중	97,200(86.0)	138,512(89.3)	174,110(93.2)	104,458(93.5)	111,062(94.8)	97,998(95.0)
	학업중단 근로 청소년	1,147(1.0)	1,159(0.7)	989(0.5)	620(0.6)	506(0.4)	4,75(0.5)
	고졸후 무직 청소년	1,572(1.4)	1,499(1.0)	1,624(0.9)	1,708(1.5)	1,861(1.6)	2,111(2.0)
	학업중단 청소년	129,70(11.5)	13,886(9.0)	9,985(5.3)	4,904(4.4)	3,654(3.1)	2,554(2.5)

나. 연도별 청소년 문제유형 대분류 분석 결과

분석 대상자의 연도별 문제유형 대분류의 분포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전체 연도를 모두 합산한 문제유형 대분류에서 대인관계가 141,892명(18.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기타 133,520명(17%), 진로 98,280명(12.5%), 미디어 중독 96,541명(12.3%), 학업 관련 문제 53,938명(6.9%), 가족갈등 52,040명(6.6%), 내재화문제 48,433명(6.2%), 성격문제 39,595명(5.0%), 학교폭력 33,870명(4.3%), 학교생활 부적응 28,476명(3.6%), 금품갈취 및 절도 18,305명(2.3%), 자살·자해 14,798명(1.9%), 외현화 문제 12,247명(1.6%), 음주 및 흡연 문제 6,479명(0.8%), 성문제 5,861명(0.7%), 자녀 학대 및 방임 문제 2,663명(0.3%)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연도를 합산한 문제 유형 빈도가 높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기타가 25,741명(2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로 20,852명(18.5%), 대인관계 13,551명(12.0%), 학업관련문제 8,501명(7.5%), 가족갈등 7,357명(6.5%)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또한 2011년과 동일하게 기타가 29,272명(1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로 28,802명(18.6%), 대인관계 26,245명(16.9%), 학업관련문제 12,782명(8.2%), 가족갈등 9,925명(6.4%)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대인관계가 33,200명(17.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32,841명(17.6%), 미디어 중독 32,508명(17.4%), 진로 23,032명(12.3%), 학업관련 문제 13,173명(7.1%)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대인관계 문제가 25,153명(22.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6,032명(14.3%), 미디어 중독 12,243명(11.0%), 진로 11,528명(10.3%), 가족갈등 8,258명(7.4%)로 나타났다. 2019년은 또한 2015년, 2017년과 동일하게 대인관계 문제가 25,638명(2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디어 중독 16,420명(14.0%), 기타 15,651명(13.4%), 진로 8,167명(7.0%), 가족갈등 8,160명(7.0%)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었던 2021년에는 미디어 중독이 18,357명(17.8%)으로 가장 많았고 대인관계 18,105명(17.5%), 기타 13,983명(13.6%), 내재화 문제 13,054명(13.6%), 가족갈등 8,523명(8.3%)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중 대인관계, 미디어 중독, 진로, 학업관련 문제, 가족갈등은 전체 연도를 합산한 결과와 각 연도별 자료에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연도가 동일하게 청소년 문제 유형을 특정할 수 없는 기타 값이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나있다. 다른 연도와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가정 내 생활 증가로 미디어 중독 문제, 대인관계 문제, 내재화 문제, 가족갈등 문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표 6. 분석 대상자의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전체(%)	112,985 (100)	155,148 (100)	186,749 (100)	111,736 (100)	117,138 (100)	103,182 (100)	786,938 (100)
가족 갈등(%)	7,357 (6.5)	9,925 (6.4)	9,817 (5.3)	8,258 (7.4)	8,160 (7.0)	8,523 (8.3)	52,040 (6.6)
자녀 학대 및 방 임(%)	512 (0.5)	496 (0.3)	519 (0.3)	372 (0.3)	343 (0.3)	421 (0.4)	2,663 (0.3)
학교폭력(%)	4,841 (4.3)	7,452 (4.8)	8,540 (4.6)	5,133 (4.6)	5,331 (4.6)	2,573 (2.5)	33,870 (4.3)
금품갈취, 절도(%)	4,474 (4.0)	3,380 (2.2)	3,196 (1.7)	2,474 (2.2)	2,587 (2.2)	2,194 (2.1)	18,305 (2.3)
음주, 흡연 등(%)	1,392 (1.2)	1,269 (0.8)	917 (0.5)	835 (0.7)	1,163 (1.0)	903 (0.9)	6,479 (0.8)
학업 관련 문제(%)	8,501 (7.5)	12,782 (8.2)	13,173 (7.1)	7,522 (6.7)	6,379 (5.4)	5,581 (5.4)	53,938 (6.9)
학교생활부적응(%)	6,096 (5.4)	6,459 (4.2)	5,849 (3.1)	3,865 (3.5)	3,961 (3.4)	2,246 (2.2)	28,476 (3.6)
진로(%)	20,852 (18.5)	28,802 (18.6)	23,032 (12.3)	11,528 (10.3)	8,167 (7.0)	5,899 (5.7)	98,280 (12.5)
성문제(%)	984 (0.9)	946 (0.6)	993 (0.5)	937 (0.8)	970 (0.8)	1,031 (1.0)	5,861 (0.7)
성격문제(%)	5,311 (4.7)	7,858 (5.1)	7,681 (4.1)	6,884 (6.2)	6,268 (5.4)	5,593 (5.4)	39,595 (5.0)
대인관계(%)	13,551 (12.0)	26,245 (16.9)	33,200 (17.8)	25,153 (22.5)	25,638 (21.9)	18,105 (17.5)	141,892 (18.0)
내재화문제(%)	3,699 (3.3)	6,570 (4.2)	7,019 (3.8)	7,610 (6.8)	10,481 (8.9)	13,054 (12.7)	48,433 (6.2)
외현화 문제(%)	1,549 (1.4)	2,067 (1.3)	2,513 (1.3)	1,782 (1.6)	2,140 (1.8)	2,196 (2.1)	12,247 (1.6)
자살, 자해(%)	968 (0.9)	1,769 (1.1)	4,951 (2.7)	1,108 (1.0)	3,479 (3.0)	2,523 (2.4)	14,798 (1.9)
미디어 중독(%)	7,157 (6.3)	9,856 (6.4)	32,508 (17.4)	12,243 (11.0)	16,420 (14.0)	18,357 (17.8)	96,541 (12.3)
기타(%)	25,741 (22.8)	29,272 (18.9)	32,841 (17.6)	16,032 (14.3)	15,651 (13.4)	13,983 (13.6)	133,520 (17.0)

다. 연도별 청소년 문제유형 소분류 분석 결과

분석대상자의 연도별 문제유형 대분류 16개에 대한 소분류는 총 52개로 가족갈등에 대한 소분류의 분포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가족갈등” 소분류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전체(%)	7,357 (100)	9,925 (100)	9,817 (100)	8,258 (100)	8,160 (100)	8,523 (100)	52,040 (100)
부모자녀와의갈등 (%)	5,698 (77.5)	7,902 (79.6)	7,497 (76.4)	6,269 (75.9)	6,271 (76.9)	6,436 (75.5)	40,073 (77.0)
부모 외 가족 구 성원간의 갈등(%)	1,017 (13.8)	1,250 (12.6)	1,457 (14.8)	1,308 (15.8)	1,156 (14.2)	1,464 (17.2)	7,652 (14.7)
부모 간 갈등 및 폭력(%)	642 (8.7)	773 (7.8)	863 (8.8)	681 (8.2)	733 (9.0)	623 (7.3)	4,315 (8.3)

CYS-Net 청소년 문제유형 대분류 가족갈등을 구성하는 소분류는 부모자녀와의 갈등, 부모 외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부모 간 갈등 및 폭력이다. 전체 연도를 합산한 결과 부모 자녀와의 갈등이 40,073명(77.0%)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외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7,652명(14.7%), 부모간 갈등 및 폭력 4,315명(8.3%) 순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자녀 학대 및 방임을 구성하는 소분류는 자녀 학대 및 방임 단일 소분류로 <표 8>과 같다. 2011년 512명, 2013년 496명, 2015년 519명, 2017년 372명, 2019년 343명, 2021년 421명으로 나타나 연도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자녀학대 및 방임” 소분류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자녀학대 및 방임	512	496	519	372	343	421	2,663

대분류 학교폭력의 소분류는 <표 9>와 같이 학교 내 폭력과 학교 외 폭력으로 구분되어 있다. CYS-Net에 입력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폭력 전체 수는 33,870명이다. 전체 건 중 학교 내 폭력이 29,406명(86.8%)이며 학교 외 폭력은 4,464명(13.2%)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CYS-Net에 등록된 학교폭력 문제 경험 청소년은 4,006명에서 7,690명

으로 지속 증가하다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등교를 하지 않는 기간이 많았던 2021년의 경우 학교폭력 문제는 1,996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표 9.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학교폭력” 소분류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전체(%)	4,841 (100)	7,452 (100)	8,540 (100)	5,133(100)	5,331 (100)	2,573 (100)	33,870 (100)
학교 내 폭력(%)	4,006 (82.8)	6,791 (91.1)	7,690 (90.0)	4,480 (87.3)	4,473 (83.9)	1,966 (76.4)	29,406 (86.8)
학교 외 폭력(%)	835 (17.2)	661 (8.9)	850 (10.0)	653 (12.7)	858 (16.1)	607 (23.6)	4,464 (13.2)

대분류 금품갈취 및 절도의 소분류는 대분류와 동일하다. 금품 갈취 및 절도는 2011년 4,474명, 2013년 3,380명, 2015년 3,196명, 2017년 2,474명, 2019년 2,587명, 2021년 2,19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0.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금품갈취 및 절도” 소분류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금품갈취 및 절도	4,474	3,380	3,196	2,474	2,587	2,194	18,305

대분류 음주, 흡연은 단일 소분류이다. CYS-Net에 등록된 음주 및 흡연은 2011년 1,392명, 2013년 1,269명, 2015년 917명, 2017년 835명, 2019년 1,163명, 2021년 903명으로 나타났다.

표 11.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음주 및 흡연” 소분류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음주 및 흡연	1,392	1,269	917	835	1,163	903	6,479

대분류 학업관련 문제는 <표 12>과 같이 학업동기 부족, 학습 능력 부족, 시험불안 및 학업스트레스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CYS-Net에 등록된 학업 관련 문제 경험 청소년은 지속 증가하여 8,501명에서 13,173명까지 약 55%가 증가하

였다. 해당 연도의 학업 관련 문제에서 학업 동기 부족이 60%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습 능력 부족, 시험불안 및 학업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학업 관련 문제는 지속 감소하여 2021년 5,581명으로 2011년 대비 약 44% 감소하였다. 학업 관련 문제에서 학업동기 부족 문제가 이전 연도와 동일하게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시험불안 및 학업 스트레스가 학습 능력 부족보다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표 12.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학업 관련 문제” 소분류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전체(%)	8,501(100)	12,782(100)	13,173(100)	7,522(100)	6,379(100)	5,581(100)	53,938(100)
학업 동기 부족(%)	5,929(69.7)	9,145(71.5)	8,383(63.6)	4,293(57.0)	3,680(57.7)	2,732(49.0)	34,162(63.3)
학습 능력 부족(%)	1,586(18.7)	2,271(17.8)	2,771(21.1)	1,336(17.8)	945(14.8)	952(17.0)	9,861(18.3)
시험불안, 학업 스트레스(%)	986(11.6)	1,366(10.7)	2,019(15.3)	1,893(25.2)	1,754(27.5)	1,897(34.0)	9,915(18.4)

대분류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른 소분류는 <표 13>과 같이 학교생활 부적응, 등교거부, 해외귀국 청소년이다. 전체 연도별 학교생활 부적응을 구성하는 소분류의 비율은 학교생활 부적응이 가장 많았고 등교 거부, 해외 귀국 청소년 부적응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학교생활 부적응은 4,319명으로 나타난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 하여 1,682명으로 나타났다. 등교 거부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며 2011년 1,714명에서 2021년 513명으로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귀국 청소년 부적응은 2011년 63명, 2013년 101명, 2015년 137명으로 증가하다 2017년 105명, 2019년 44명, 2021년 51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표 13.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학교생활 부적응” 소분류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전체(%)	6,096(100)	6,459(100)	5,849(100)	3,865(100)	3,961(100)	2,246(100)	28,476(100)
학교 생활 부적응(%)	4,319(70.8)	4,802(74.3)	4,617(78.9)	3,101(80.2)	3,249(82.0)	1,682(74.9)	21,770(76.4)
등교 거부(%)	1,714(28.1)	1,556(24.1)	1,095(18.8)	659(17.1)	668(16.9)	513(22.8)	6,205(21.8)
해외 귀국 청소년 부적응(%)	63(1.1)	101(1.6)	137(2.3)	105(2.7)	44(1.1)	51(2.3)	501(1.8)

대분류 진로의 소분류는 <표 14>와 같이 진로의식 부족, 진로 정보 탐색, 진로 변경 및 전환이다. 진로에 대한 전체 소분류는 2013년을 제외하면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진로는 2021년 5,899명으로 2011년 20,852명 대비 감소율 71.7%로 수치가 가장 낮아진 대분류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소분류에서 진로 정보 탐색이 70%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으로 진로 의식 부족 및 진로 변경 및 전환으로 나타난다.

표 14.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진로” 소분류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전체(%)	20,852(100)	28,802(100)	23,032(100)	11,528(100)	8,167(100)	5,899(100)	98,280(100)
진로의식 부족(%)	2,260(10.8)	5,771(20.0)	2,593(11.3)	1,833(15.9)	1,394(17.1)	829(14.1)	14,680(14.9)
진로정보 탐색(%)	17,850(85.6)	21,440(74.4)	19,260(83.6)	8,829(76.6)	6,121(74.9)	4,511(76.5)	78,011(79.4)
진로변경 및 전환(%)	742(3.6)	1,591(5.5)	1,179(5.1)	866(7.5)	652(8.0)	559(9.5)	5,589(5.7)

성문제를 이루는 소분류는 <표 15>와 같이 임신 및 피임, 낙태, 성병, 성폭력, 성희롱, 근친, 음란물, 이상성행동, 성욕 및 성충동, 성적체감, 성매매 등 10개이다. CYS-Net에 입력된 2011년 임신 및 피임에 대한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은 13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2013년 127명, 2015년 78명, 2017년 31명, 2019년 21명, 2021명으로 지속 감소하였다. 성폭력 및 성희롱은 2011년 464명, 2013년 402명, 2015년 421명, 2017년 395명으로 연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9년 554명, 2021년 598명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음란물의 경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21년 136명으로

2011년 대비 약 58%로 증가하였다. 낙태, 성병, 근친, 이상성행동, 성욕 및 성충동, 성적 체감, 성매매의 경우 연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5.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성문제” 소분류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전체(%)	984(100)	946(100)	993(100)	937(100)	970(100)	1,031(100)	5,861(100)
임신, 피임(%)	133(13.5)	127(13.4)	78(7.9)	31(3.3)	21(2.2)	18(1.7)	408(7.0)
낙태(%)	13(1.3)	11(1.2)	8(0.8)	5(0.5)	7(0.7)	3(0.3)	47(0.8)
성병(%)	4(0.4)	15(1.6)	9(0.9)	3(0.3)	0(0.0)	2(0.2)	33(0.6)
성폭력, 성희롱(%)	464(47.2)	402(42.5)	421(42.4)	395(42.2)	554(57.1)	598(58.0)	2,834(48.4)
근친(%)	37(3.8)	20(2.1)	20(2.0)	23(2.5)	10(1.0)	10(1.0)	120(2.0)
음란물(%)	86(8.7)	60(6.3)	71(7.2)	99(10.6)	84(8.7)	136(13.2)	536(9.1)
이상성행동(%)	28(2.8)	37(3.9)	62(6.2)	69(7.4)	41(4.2)	51(4.9)	288(4.9)
성욕, 성충동(자위 행위)(%)	104(10.6)	114(12.1)	183(18.4)	196(20.9)	168(17.3)	133(12.9)	898(15.3)
성정체감(%)	57(5.8)	68(7.2)	67(6.7)	80(8.5)	51(5.3)	51(4.9)	374(6.4)
성매매(%)	58(5.9)	92(9.7)	74(7.5)	36(3.8)	34(3.5)	29(2.8)	323(5.5)

대분류 성격문제의 소분류는 <표 16>과 같이 소극적 과민한 성격, 충동적 공격적 성격, 의존적 우유부단한 성격, 자기중심적 독단적 성격, 완벽성향 경진된 성격, 편집적 성격으로 6개로 구분되어 있다. 각 연도별 성격문제 중 소극적 과민한 성격이 가장 많았고 그 이후 충동적 공격적 성격, 자기중심적 독단적 성격, 의존적 우유부단한 성격, 완벽성향 경진된 성격, 편집적 성격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성격문제 소분류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6.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성격문제” 소분류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전체(%)	5,311(100)	7,858(100)	7,681(100)	6,884(100)	6,268(100)	5,593(100)	3,9595(100)
소극적, 과민한 성격(%)	2,400(45.2)	3,854(49.0)	3,392(44.2)	3,261(47.4)	2,914(46.5)	2,833(50.7)	18,654(47.1)
충동적, 공격적 성	1,978(37.2)	2,508(31.9)	2,563(33.4)	2,201(32.0)	2,061(32.9)	1,582(28.3)	12,893(32.6)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격(%)							
의존적, 우유부단한 성격(%)	330(6.2)	574(7.3)	594(7.7)	488(7.1)	423(6.7)	388(6.9)	2,797(7.1)
자기중심적, 독단적 성격(%)	433(8.2)	591(7.5)	633(8.2)	578(8.4)	524(8.4)	410(7.3)	3,169(8.0)
완벽성향, 경직된 성격(%)	132(2.5)	261(3.3)	355(4.6)	296(4.3)	282(4.5)	310(5.5)	1,636(4.1)
편집적 성격(%)	38(0.7)	70(0.9)	144(1.9)	60(0.9)	64(1.0)	70(1.3)	446(1.1)

대인관계의 소분류는 <표 17>과 같이 따돌림 및 왕따, 친구관계, 이성교제, 교사와의 관계, 부모 외 어른과의 관계 등 5개로 구분되어 있다. 전체 연도별 대인관계 소분류에서 친구관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따돌림 및 왕따, 교사와의 관계, 이성교제, 부모 외 어른과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따돌림 및 왕따는 2011년 3,019명으로 나타난 후 2013년 3,902명으로 증가했으나 2015년부터 2,711명, 2017년 2,309명, 2019년 2,309명, 2021년 1,181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친구관계는 2011년 9,490명에서 2013년 21,021명, 2015년 28,95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후 2017년 21,477명, 2019년 21,867명, 2021년 15,988명으로 감소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2011년 488명에서 2019년 654명으로 지속 증가하다가 2021년 241명으로 감소했다. 이성교제와 부모 외 어른과의 관계는 각 연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7.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대인관계” 소분류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전체(%)	13,551(100)	26,245(100)	33,200(100)	25,153(100)	25,638(100)	18,105(100)	141,892(100)
따돌림, 왕따(%)	3,019(22.3)	3,902(14.9)	2,711(8.2)	2,145(8.5)	2,309(9.0)	1,181(6.5)	15,267(10.8)
친구관계(%)	9,490(70.0)	21,021(80.1)	28,950(87.2)	21,477(85.4)	21,867(85.3)	15,988(88.3)	118,793(83.7)
이성교제(%)	336(2.5)	533(2.0)	693(2.1)	614(2.4)	489(1.9)	392(2.2)	3,057(2.2)
교사와의 관계(%)	488(3.6)	542(2.1)	564(1.7)	641(2.5)	654(2.6)	241(1.3)	3,130(2.2)
부모 외 어른과의 관계(%)	218(1.6)	247(0.9)	282(0.8)	276(1.1)	319(1.2)	303(1.7)	1,645(1.2)

내재화 문제의 소분류는 <표 18>과 같이 우울 및 위축, 신체화문제, 강박 및 불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연도별 소분류의 비율에서 우울 및 위축이 가장 높았으며 강박 및 불안, 신체화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우울 및 위축 문제는 2,725명에서 2013년 4,781명, 2015년 4,808명, 2017년 5,114명, 2019년 7,176명, 2021년 8,364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강박 및 불안 또한 2011년 882명, 2013년 1,649명, 2015년 2,017명, 2017년 2,341명, 2019년 3,111명, 2021년 4,453명으로 신체화 문제는 2011년 92명에서 2013년 140명, 2015년 194명, 2017년 155명, 2019년 194명, 2021년 237명으로 나타나 지속 증가했다.

표 18.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내재화 문제” 소분류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전체(%)	3,699(100)	6,570(100)	7,019(100)	7,610(100)	10,481(100)	13,054(100)	48,433(100)
우울, 위축(%)	2,725(73.7)	4,781(72.8)	4,808(68.5)	5,114(67.2)	7,176(68.5)	8,364(64.1)	32,968(68.1)
신체화문제(%)	92(2.5)	140(2.1)	194(2.8)	155(2.0)	194(1.9)	237(1.8)	1,012(2.1)
강박, 불안(%)	882(23.8)	1,649(25.1)	2,017(28.7)	2,341(30.8)	3,111(29.7)	4,453(34.1)	14,453(29.8)

외현화 문제 소분류는 <표 19>와 같이 반항 및 품행문제, 주의산만 및 과잉행동, 충동(분노) 조절 문제 등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외현화 문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분류는 충동(분노) 조절 문제이며 주의산만 및 과잉행동, 반항 및 품행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충동(분노) 조절 문제는 2011년 717명, 2013년 1,131명, 2015년 1,478명으로 지속 증가하다 2017년 993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2019년부터 1,319명, 2021년 1,397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항 및 품행문제와 주의산만 및 과잉행동 문제에서 연도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9.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외현화 문제” 소분류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전체(%)	1,549(100)	2,067(100)	2,513(100)	1,782(100)	2,140(100)	2,196(100)	12,247(100)
반항 및 품행문제(%)	262(16.9)	326(15.8)	341(13.6)	265(14.9)	275(12.9)	212(9.7)	1,681(13.7)
주의산만 및 과잉행동(%)	570(36.8)	610(29.5)	694(27.6)	524(29.4)	546(25.5)	587(26.7)	3,531(28.8)
충동(분노)조절 문제(%)	717(46.3)	1,131(54.7)	1,478(58.8)	993(55.7)	1,319(61.6)	1,397(63.6)	7,035(57.4)

미디어 중독의 소분류는 <표 20>과 같이 인터넷 게임 과다, 인터넷 채팅 과다, 인터넷 쇼핑과다 인터넷 음란물 과다, 스마트폰 과다 등 5개로 구성된다. 2015년부터 스마트폰 과다가 신규 청소년 문제 유형 소분류로 생성되면서 전체 미디어 중독은 2013년 9,856명에서 2015년 32,50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인터넷 게임 과다는 2011년 6,947명, 2013년 9,441명으로 증가하다 2015년 21,323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부터는 대폭 감소하여 4,879명, 2019년 5,000명, 2021년 6,621명으로 나타나 2011년 수준을 유지했다. 스마트폰 과다는 2015년 10,190명이었으나 2017년 6,934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2019년 11,077명, 2021년 11,209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인터넷 채팅 과다, 인터넷 채팅 과다, 인터넷 쇼핑 과다에서 연도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0.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미디어 중독” 소분류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전체(%)	7,157(100)	9,856(100)	32,508(100)	12,243(100)	16,420(100)	18,357(100)	96,541(100)
인터넷 게임 과다(%)	6,947(97.1)	9,441(95.8)	21,323(65.6)	4,879(39.9)	5,000(30.5)	6,621(36.1)	54,211(56.2)
인터넷 채팅 과다(%)	180(2.5)	355(3.6)	915(2.8)	354(2.9)	289(1.8)	453(2.5)	2,546(2.6)
인터넷 쇼핑 과다(%)	14(0.2)	30(0.3)	37(0.1)	52(0.4)	32(0.2)	42(0.2)	207(0.2)
인터넷 음란물 과다(%)	16(0.2)	30(0.3)	43(0.1)	24(0.2)	22(0.1)	32(0.2)	167(0.2)
스마트폰과다(%)	0(0.0)	0(0.0)	10,190(31.3)	6,934(56.6)	11,077(67.5)	11,209(61.1)	39,410(40.8)

대분류 기타의 소분류는 대분류와 동일하다. 2011년 25,741명, 2013년 29,272명, 2015년 32,841명으로 지속 증가하다 2017년 16,032명, 2019년 15,651명, 2021년 13,983으로 감소했다.

표 21. 연도별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기타” 소분류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기타	25,741	29,272	32,841	16,032	15,651	13,983	133,520

라. CYS-Net 청소년 문제 유형의 한계점

CYS-Net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는 2006년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분류하고 이에 따른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청소년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이나 수정 없이 신규 문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 유형 분류가 이루어졌다. 지난 10년간 CYS-Net 청소년 문제 유형 분석 결과 현재의 분류는 몇 가지 한계를 나타낸다.

첫째, 전체 청소년 문제 중 문제 유형을 알 수 없는 기타 값이 많이 관찰된다. 2011년과 2013년의 경우 전체 대분류 중 기타값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또한 기타값이 2순위에서 3순위로 나타났다. 기타 값이 많이 나타날 경우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에 따른 제대로 된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할 수 없으며 청소년 사례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기타값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둘째, 대분류와 소분류의 위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음주, 흡연이 학교폭력에 포함되어 있고 대분류 대인관계 내 왕따 및 따돌림, 대분류 성 내 성폭력 및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어 서비스 제공 및 사례 관리에 제한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갈등 내 부모자녀와의 갈등, 부모의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부모간 갈등 및 폭력 등으로 대상 위주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어 갈등을 경험하는 원인이나 실제적 문제에 다가가기 어렵다.

셋째, 신규 청소년 문제 및 이슈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고립, 경제적 결핍, 코로나로 인한 신체건강, 직장 관계, 노동인권, 비자살적 자해, 스토킹, 노숙 등 신규 청소년 문제 유형 및 이슈를 포함한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가. 신규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에 대한 의견

신규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에 대한 의견으로는 크게 ‘기존 문제유형의 누락’, ‘신규 추가된 문제유형에 대한 의문’, ‘신규 추가된 문제유형에 대한 만족’, ‘추가적인 신규 문제유형 반영의 필요성’,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의 필요성’, ‘대분류 순서 변경의 필요성’ 등 6개의 큰 범주로 구분되었다. 각 범주에 대한 개념은 <표 22>와

같다.

표 22. 신규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에 대한 범주 및 개념

범주	개념
기존 문제유형 누락에 대한 아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영역 • 성격 영역
신규 추가된 문제유형에 대한 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건강 영역
신규 추가된 문제유형에 대한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피해 영역 • 빈곤 및 경제적 결핍 영역 • 후기청소년 문제 반영
추가적인 신규 문제유형 반영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소외계층 문제 • 최근 부각되는 청소년 문제(금융피해 등)
독립된 문제유형으로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 및 폭력가해 영역
대분류 순서 변경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를 고려한 대분류 순서 구성

‘기존의 문제유형 누락에 대한 아쉬움’의 범주에서는 성격 영역, 가족 영역 등의 범주로 나뉘었다.

“상담실에 그냥 성격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정신 건강이 꼭 아니다 하더라도 성격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여기서 이제 정신 건강과 좀 겹치지 않는 성격 중에서는 소극적인 성격 굉장히 그런 어떤 아이들이 좀 많이 좀 누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 학계전문가 1

“가족에 대한 갈등이나 부모 자녀 간의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족의 대분류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분류 체계가 나뉘었는지 삭제되었는지 좀 그런 점이 궁금해요” - 현장전문가 2

‘신규 추가된 문제유형에 대한 의문’의 범주에서는 신체 건강 영역 등의 범주로 나뉘었다.

“신체 건강 부분이 여전히 사실은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아픈 거는 상담센터에서 호소하는 문제가 그냥 몸이 아픈 거는 사실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고 오히려 신체와 증상의 경우는 호소를 하거든요 내가 병원을 가봤더니 별 이상이 없다고 한다 근데 나는 두통이 있고 학교만 가려고 하면 구역 구토가 나고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거는 호소는 하지만 그냥 단

순히 내가 몸이 아파요라고 하는 거는 조금 호소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신체와 증상 쪽으로 호소를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여전히 사실 신체 건강 부분은 조금 모호하게 느껴져요” - 현장전문가 1

‘신규 추가된 문제유형에 대한 만족’의 범주에서는 폭력 피해 영역, 빈곤 및 경제적 결핍 영역, 후기청소년 문제 등의 범주로 나뉘었다.

“큰 폭력 피해라는 테두리 안에 가정 폭력 아동학대 학교 사이버 폭력이 다 들어가니까 폭력 피해라는 그 분류를 새로 이렇게 생성해낼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조금 유리하다 일목요연하게 오히려 조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굉장히 이 분류가 들어간 건 되게 반가웠었고요” - 현장전문가 1

“저희가 갈수록 늘어나는 후기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의 청소년에 대한 실적 입력을 할 때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를 보면 특히 학원 및 진로 부분에서 후기 청소년을 좀 고려한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현장전문가 2

“저는 이제 변화되는 청소년 문제가 다양하게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 컴퓨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폭력 피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내용과 또 저희들 빈곤 및 경제적 결핍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되고 있고 사례 관리의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유형 대분류가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 현장전문가3

‘추가적인 신규 문제유형 반영의 필요성’의 범주에서는 ‘새로운 소외계층의 문제’, ‘최근 부각되는 청소년 문제’ 등의 범주로 나뉘었다.

“가족 구조가 좀 다양해지거나 가족 환경이 변화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소외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상들과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유형의 그것 이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집단 이게 대분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새로운 사회 가족 아까 말한 가족이라는 다른 거잖아요 가족적인 환경이 뭔가 다양해지면서 그러니까는 앞에서 여기서는 지금 부모로부터 학대받거나 이런 것들은 잡을 수 있는데 청소년 부모나 가족 돌봄 청소년은 본인이 부양을 하는데서 비롯되는 문제가 있는거에 고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 학계전문가 3

“최근에 조금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들 문제 예를 든다면 트라우마라든지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이런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조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이 분류의 방향을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장전문가 1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의 필요성’의 범주에서는 ‘폭력 가해와 비행의 구분’ 등의 범주로 나뉘었다.

“폭력 가해와 비행을 구분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큰 걸 비행 이다라고 한다면 전체에서 폭력 피해는 있는데 폭력 가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 예 그냥 구분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 학계전문가 1

‘대분류 순서 변경의 필요성’의 범주에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대분류 순서 구성’ 등의 범주로 나뉘었다.

“처음부터 폭력 피해 부분부터 너무 포커싱이 맞춰진 듯한 느낌이 예를 들어서 이 순서 부분을 좀 더 청소년 문제 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CYS-Net에서 나오는 실적을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거나 데이터화하는데 가장 유형별로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분류가 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었고” - 현장전문가 2

나. 신규 청소년 문제 유형 소분류에 대한 의견

신규 청소년 문제 유형의 소분류에 대한 의견으로는 크게 ‘기존 문제유형의 누락’, ‘신규 추가된 문제유형에 대한 만족’, ‘추가적인 신규 문제유형 반영의 필요성’,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의 필요성’ 등 4개의 큰 범주로 구분되었다. 각 범주에 대한 개념은 <표 23>과 같다.

표 23. 신규 청소년 문제 유형 소분류에 대한 범주 및 개념

범주	개념
기존 문제유형 누락에 대한 아쉬움	• 자녀 성교육 제외
신규 추가된 문제유형에 대한 만족	•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 추가 •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추가
추가적인 신규 문제유형 반영의 필요성	• 금융피해 추가 • 교칙위반 추가

범주	개념
독립된 문제유형으로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분리 • 성폭력과 디지털성폭력 분리

‘기존의 문제유형 누락에 대한 아쉬움’의 범주에서는 ‘자녀 성교육’의 범주로 나뉘었다.

“청소년의 성과 관련해서 부모가 상담을 하시는 부분은 자녀의 성교육 부분인데 그 부분이 소분류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이런 정보 제공에 관련된 실적 입력을 하게 된다면 또 기타로 들어가는 또 그러한 상황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기타 값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런 소분류가 줄어들다 보면 결국엔 또 기타 값이 또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현장전문가 2

‘신규 추가된 문제유형에 대한 만족’의 범주에서는 ‘자살 및 자해 영역’,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의 범주로 나뉘었다.

“정신 건강에 있는 자살이나 자해 영역 자체를 자살 사고인지 자살 시도인지 비자살적인 자인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분류를 한 것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를 조금 반영하고 하는 데 적절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 현장전문가1

“사이버 폭력이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든지 성 역할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생활 시설인 쉼터에서는 조금 반가운 내용이고요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고 상담복지개발원에 이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현장전문가 3

‘추가적인 신규문제 유형 반영의 필요성’의 범주에서는 ‘금융 피해’, ‘자녀의 성교육’, ‘교칙 위반’ 등의 범주로 나뉘었다.

“학교 생활 안에 뭔가 무단결석이라든지 교칙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요” - 현장전문가1

“현장전문가분들 만나 봤을 때 금융 피해 그러니까 본인이 금전적으로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를 하는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경우는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 학계전문가3

“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분류로 자녀의 성교육 부분을 좀 더 추가가 되면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 현장전문가 2

‘독립된 문제유형으로의 분리 필요성’의 범주에서는 학교 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분리,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의 분리 등의 범주로 나뉘었다.

“폭력 가해는 학교 폭력이랑 사이버 폭력은 저희가 가해를 별도로 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많지 않더라도 좀 두 개를 좀 나눠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학계전문가 1

“디지털 성폭력은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워낙에 많기도 하고 당분간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들이 계속 추이를 보려면 아예 별도 항목으로 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학계전문가 2

다. 전문가 FGI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 유형 유형에 대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진 4명의 합의를 통해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에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첫째,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에서 ‘성격’ 영역을 추가하였다. 기존에 포함되었던 성격 문제가 정신건강과의 중복되는 부분으로 제외시켰으나, 전반적인 성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우려된다는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기존 성격 문제 영역을 대분류 영역으로 추가하고 성격 영역 중 주로 다루어졌던 하위 영역을 추려 소분류에 포함시켰다.

둘째,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에서 ‘폭력 가해 및 비행’을 ‘폭력 가해’와 ‘비행’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비행에 범주에 폭력 가해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폭력 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폭력 가해로 포함시켜 폭력 피해의 하위 영역들을 그대로 포함시켜 가해와 피해 각각 항목을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행’의 하위영역으로 지위비행에 포함되었던 흡연/음주를 ‘과의존’ 대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위비행을 삭제하고 경비행과 중비행만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셋째, 기존 외모불만족 항목이 대분류에서 제외된 점이 아쉽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에 따라 외모불만족을 신체건강 및 신체 인식의 대분류 항목으로 변경하여 해당 문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하였다.

넷째, 기존 폭력피해부터 시작되었던 대분류 구성을 좀 더 유형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순서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정신건강, 대인관계, 성격, 학업 및 진로, 과의존, 폭력피해, 폭력가해, 비행, 성, 신체건강 및 신체 인식, 빈곤 및 경제적 결핍 순으로 최종 반영하였다.

다섯째,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영역별 소분류 내용을 추가하였다.

전문가 FGI 분석 결과를 반영한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안)은 다음의 <표 24>와 같다.

표 24. 전문가 FGI 분석 결과를 반영한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정신건강	자살	자살사고(자살생각)
		자살시도
	비자살적 자해	
	우울	우울(위축)
	불안/강박	불안
		공포
		공황
		강박
	품행 및 공격행동	품행
		반항
		공격행동
		분노조절
	외상 후 스트레스	
	사고문제	정신증
		편집증
망상		
신체화문제	건강염려	
	섭식	
발달문제	경계선 지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2. 대인관계	무(無)관계	고립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계단절
	또래관계	
	이성관계(연인관계)	
	교사(학교, 학원등)관계	
	가족관계	부모자녀와의 갈등
		부모 간 갈등
		부모 외 갈등
	온라인상 관계	
3. 성격	소극적·과민한 성격	
	충동적·공격적 성격	
4. 학업 및 진로	학업(성적)	
	학교생활	
	진학(상위교육 진학)	
	진로탐색(진로의식)	
	진로역량(자격/훈련)	
	진로변경	
	취·창업준비	
5. 과의존	인터넷/스마트폰	
	흡연, 음주, 약물 등	흡연
		음주
		약물 등 환각물질
	도박	온라인(사이버) 도박
오프라인 도박		
6. 폭력피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방임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사이버폭력 제외)	
	디지털성폭력	
7. 폭력가해	가정폭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디지털성폭력 제외)	
	디지털성폭력	
8. 비행	경비행	단순 가출
		성인사이트
		교칙위반
	중비행	폭력
		금품갈취/절도
		사기(사이버 포함)
		환각물질 사용(단기)
9. 성	성건강 및 신체구조	성병/에이즈
		성교육
		성지식
	성매매	
	성적충동/성욕구	자위행동
		성관계
		이상성행동
임신/출산/낙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성역할/성차별(양성평등)		
10. 신체건강 및 신체 인식	신체건강	
	외모불만족	
	신체화 증상	
11. 빈곤 및 경제적 결핍	경제적 빈곤(요금)	물질적 결핍
		교육적 결핍
	주거 빈곤	
노숙		

3.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가.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1차 조사에서 호소문제의 대분류는 기존 9개 영역에서 신규 11개 영역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기존 대분류는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외모, 컴퓨터/인터넷 사용 등 총 9개였다. 이 연구는 이를 정신건강, 대인관계, 성격, 학업 및 진로, 과의존, 폭력피해, 폭력가해, 비행, 성, 신체건강 및 신체 인식, 빈곤 및 경제적 결핍 등 총 11개의 영역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는 기존 대분류 체계에서 '가족' 및 '일탈 및 비행' 대분류를 삭제하고 '신체건강', '빈곤 및 경제적 결핍' 대분류를 추가한 것, 그리고 '컴퓨터/인터넷 사용'을 '과의존'과 같이 최근의 현상과 관련된 개념으로 업데이트한 특징이 있다.

1차 조사 결과 전체 대분류 11개 중 “성격”을 제외한 10개의 분류가 긍정적으로 합의되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절한 타당도와 CVR 수치가 나타났으나, '성격' 영역의 참고지표인 합의도와 수렴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연구진은 오픈 문항을 통해 성격과 비행에 대한 제안들이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두 영역을 다른 영역의 하위 범주로 옮기고 9개 영역을 통해 다시 2차 델파이를 시행하였다. 9개 영역은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업 및 진로, 과의존/중독, 폭력피해, 폭력가해 및 비행, 성,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빈곤 및 경제적 결핍 등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델파이 1차에서 합의되지 않은 “성격” 과 “비행”을 삭제하고 중분류(“정신건강 내 성격”, “폭력가해 내 비행”)로 이동
- “과의존” → “과의존/중독”, “폭력가해” → “폭력가해” 및 “비행”으로 명칭 변경

표 25. 대분류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항목	타당도 평균	CVR
정신건강	4.6	0.8	정신건강	4.9	1.0
대인관계	4.7	1.0	대인관계	4.9	1.0
성격	4.0	0.5	(삭제)	-	-
학업 및 진로	4.7	1.0	학업 및 진로	4.9	1.0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항목	타당도 평균	CVR
과의존	4.6	0.8	과의존·중독	4.8	1.0
폭력피해	4.3	0.7	폭력피해	4.6	0.9
폭력가해	4.4	0.8	폭력가해 및 비행	4.6	0.9
비행	4.7	0.8	(삭제)	-	-
성	4.8	1.0	성	4.7	0.9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4.4	0.6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4.5	0.8
빈곤 및 경제적 결핍	4.5	0.9	빈곤 및 경제적 결핍	4.7	1.0

2차 델파이 시행 결과 타당도와 CVR 모두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나 9개 대분류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과의존/중독에서 '중독'이라는 용어가 불편하므로 '과의존/과몰입'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 폭력피해와 가해를 대인관계의 하위범주로 옮기자는 의견 등도 있었다. 9개 영역의 대분류는 확정적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유형 분류일 수 있으므로 향후 CYS-Net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쉼터 행정망이 통합 과정에서 적절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청소년 문제 유형 중분류

중분류는 1차에서 상당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기타 의견 및 연구진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1차 델파이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 의 모든 중분류(총 9개)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대인관계” 에서 “무관계” 를 제외한 5개의 분류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성격” 의 모든 중분류(총 2개)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학업 및 진로” 에서 “진로”, “진로변경”, “취·창업준비” 를 제외한 4개의 분류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과의존” 의 모든 중분류(총 3개)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폭력피해” 의 모든 중분류(총 6개)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폭력가해” 의 모든 중분류(총 5개)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비행” 의 모든 중분류(2개)가 합의되지 않음
- “성” 에서 “성건강 및 신체구조” 를 제외한 5개의 분류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에서 “신체화 증상” 을 제외한 2개의 분류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빈곤 및 경제적 결핍” 에서 “경제적 빈곤” 및 “노숙” 을 제외한 “주거빈곤” 만 합의됨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대분류에서 삭제된 성격과 비행을 각각 정신건강과 폭력가해의 하위 범주로 이동시키고, 나머지 대분류 내의 중분류는 소분류와의 체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정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각 중분류의 구체적인 1차, 2차 델파이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 정신건강

정신건강 영역은 1차 조사에서 별도 대분류로 설정되어 있던 '성격' 분류를 포괄하였다. 1차 조사에서 비교적 타당도와 CVR이 높게 나타났고, 2차 조사에서 포함된 부적응적 성격문제 역시 적절한 타당도와 CVR 수치를 보였다. 다른 문항들의 타당도와 CVR 수치들도 1차 조사와 유사하거나 상승하는 등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표 26. 정신건강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항목	타당도 평균	CVR
자살	4.8	1.0	자살	4.7	0.9
비자살적 자해	4.8	0.9	비자살적 자해	4.7	0.9
우울	4.9	1.0	우울	4.9	1.0
불안/강박	4.8	0.9	불안/강박	4.9	1.0
품행 및 공격행동	4.6	0.8	품행 및 공격행동	4.8	0.9
외상후스트레스	4.7	0.9	외상후스트레스	4.8	0.9
사고문제	4.4	0.6	사고문제	4.6	0.8
신체화문제	4.5	0.7	신체화문제	4.6	0.9
발달문제	4.7	0.9	발달문제	4.8	1.0
-	-	-	부적응적 성격문제	4.2	0.6

2) 대인관계

대인관계 영역은 7개의 영역을 1차와 2차 조사에서 모두 활용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고립과 은둔을 '무(無)관계'로 표현하였으나 타당도(4.2점)와 CVR(5.5점)이 이 영역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이를 '고립 등 관계단절'로 수정하였다.¹⁾ 이에 따라 2차 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도(4.8점)와 CVR(1.0)에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항목들 역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27. 대인관계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항목	타당도 평균	CVR
온라인상 관계	4.2	0.5	온라인상 관계	4.5	0.8
직장관계	4.5	0.7	직장관계	4.5	0.8
가족관계	4.4	0.7	가족관계	4.5	0.8
이성관계 (연인관계)	4.4	0.7	이성관계 (연인관계)	4.6	0.8
교사(학교, 학원, 청소년기관 등) 관계	4.6	0.8	교사(학교, 학원, 청 소년기관 등) 관계	4.6	0.9
또래관계	4.7	0.8	또래관계	4.7	0.9
-	-	-	고립 등 관계단절	4.8	1.0

3) 학업 및 진로

학업 및 진로 영역은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비교적 큰 변화가 있었다. 1차 델파이에서는 학업 및 진로와 연관된 기존의 내용을 많이 포괄하고자 하였는데 타당도와 CVR이 합의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기타 의견을 통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학업중단이 제외되어 있어 아쉽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2차 델파이에서 내용들을 중분류와 소분류로 나누고 학업중단문제를 포함시켰다. 이에 모든 항목에서 타당도와 CVR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과 은둔(social withdrawal)은 사회와 관계가 단절(disconnect)된다는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표 28. 학업 및 진로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항목	타당도 평균	CVR
진로변경	4.1	0.5	학업중단문제	4.4	0.8
취·창업준비	4.2	0.5	학업 및 학교생활문제	4.6	0.9
진학(상위교육 진학)	4.3	0.5	취업 및 창업	4.7	1.0
진로역량(자격/훈련)	4.3	0.6	진로(진학)문제	4.8	1.0
학교생활	4.4	0.7	-	-	-
진로탐색(진로의식)	4.5	0.7	-	-	-
학업(성적)	4.5	0.7	-	-	-

4) 과의존·중독

과의존·중독 대분류는 1차에서는 '과의존'으로만 분류가 되었으나, 최근 펜타닐 등 물질중독(substance abus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2차에서 '과의존·중독'의 대분류로 변경되었다. 이에 이 영역의 중분류도 1차에서는 '흡연, 음주, 약물 등'으로 표기되었던 항목을 '물질사용(흡연, 음주, 약물 등)'으로 변경하였다. 이 영역의 중분류는 1차와 2차에 걸쳐 매우 안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표 29. 학업 및 진로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항목	타당도 평균	CVR
인터넷/스마트폰	4.9	1.0	인터넷/스마트폰	4.9	1.0
물질사용 (흡연, 음주, 약물 등)	4.8	0.9	물질사용 (흡연, 음주, 약물 등)	4.8	1.0
도박	4.9	1.0	도박	4.9	1.0

5) 폭력피해

폭력피해영역은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중분류의 수를 줄인 것에 특징이 있다. 폭력피해는 1차 조사에서도 타당도와 CVR이 합의에 이르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차 조사에서 성폭력에 '디지털성폭력 제외'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실제로는 보호하고, 디지털사이버와 관련한 분류가 별도의 영역보다는 하위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체

계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기타 의견을 받아들여 4가지 영역으로 재분류하였다. 2차 조사의 4가지 영역은 모두 타당도와 CVR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폭력피해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항목	타당도 평균	CVR
아동학대 및 방임	4.6	0.7	아동학대 및 방임	4.8	1.0
가정폭력	4.6	0.8	가정폭력	4.8	1.0
디지털성폭력	4.6	0.8	(삭제)	-	-
학교(청소년)폭력	4.8	0.9	학교(청소년)폭력	4.8	1.0
성폭력	4.8	0.9	성폭력	4.8	1.0
사이버폭력	4.8	0.9	(삭제)	-	-

6) 폭력가해 및 비행

폭력가해 및 비행 대분류는 1차 조사의 '폭력가해'와 '비행' 대분류가 합쳐진 것이다. 폭력피해의 범주들이 1차와 2차 사이에 변경된 것과 같이 폭력가해 및 비행에서도 폭력가해 범주들이 간소화되었다. 여기에 비행을 추가하여 2차 델파이를 시행하였다. 델파이 결과 중분류 항목들은 모두 적절한 타당도와 CVR 수준을 보여주어 1차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1. 폭력가해 및 비행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항목	타당도 평균	CVR
가정폭력	4.6	0.7	가정폭력	4.7	0.9
디지털성폭력	4.6	0.8	(삭제)	-	-
학교(청소년)폭력	4.7	0.9	학교(청소년)폭력	4.9	1.0
성폭력	4.8	0.9	성폭력	4.9	1.0
사이버폭력	4.8	0.9	(삭제)	-	-
-	-	-	비행	4.6	0.8

7) 성

성 대분류는 1차 델파이에서 가장 높은 타당도를 보였고 2차 델파이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타당도를 보였다. 대신 중분류에서는 개선의 의견이 나타났는데 '성건강 및 신체구조'와 같은 항목이 의미하는 바와 하위 항목들의 분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항목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타당도(3.9점)와 CVR(0.4) 수치가 낮게 나와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기가 어려웠다. 이에 연구진은 이 대분류의 중분류와 소분류를 수정하여 2차 델파이를 시행하였다.

표 32. 성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항목	타당도 평균	CVR
성건강 및 신체구조	3.9	0.4	성건강 및 성교육	4.2	0.5
성역할/성차별 (양성평등)	4.4	0.6	성역할갈등/성차별	4.6	0.9
성적지향/성별정체성	4.5	0.7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혼란	4.6	0.8
임신/출산/낙태	4.6	0.9	임신/출산/낙태	4.7	1.0
성적충동/성욕구	4.7	0.9	성적충동/성욕구	4.6	0.8
성매매	4.8	1.0	성매매	4.7	0.9

2차 델파이에서는 이를 '성건강 및 성교육'으로 변경하였고 타당도(4.2점)와 CVR(0.5) 수준이 약간씩 개선되었다. 이 항목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needs)와 관련이 있으나 호소문제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기타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는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청소년기관에 상담을 하며 제기하는 '호소문제'의 유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이것이 청소년 '문제행동(problem behavior)' 유형화로 해석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해석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도 이것을 '문제'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는 청소년들이 고민으로 호소하는 사안이나 주제에 대한 분류 체계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8)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은 과거 외모에 대한 고민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신체 관련 호소문

제로 확장한 것이다. 이 항목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GI)에서부터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나, 정신건강과 함께 신체건강 대분류를 추가하여 세부 분류를 만들기로 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신체화 증상의 타당도(4.1)는 긍정적 수준이었으나 CVR(0.4)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기타 의견으로도 신체화 증상이 신체건강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신체화 증상을 정신건강 영역으로 옮기고, 1차 델파이 이후 전문가들이 제안한 '장애 및 만성질환' 항목을 추가하고, 외모불만족을 '신체인식(외모고민)'으로 수정하여 2차 델파이를 시행하였다. 이 결과 3가지 중분류는 모두 긍정적 수준의 타당도와 CVR 수준을 보여주었다. 기존 분류에서 장애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호소문제가 누락되어 있었던 부분을 추가한 것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33.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항목	타당도 평균	CVR
신체화 증상	4.1	0.4	건강관련행동	4.2	0.6
외모불만족	4.5	0.7	신체인식(외모고민)	4.6	0.7
신체건강	4.7	0.9	장애 및 만성질환	4.6	0.9

9) 빈곤 및 경제적 결핍

빈곤과 경제적 결핍 대분류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항목으로 이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이 대분류에 대해서도 전문가 FGI에서 타당성이 논의되었으나 쉼터 전문가를 중심으로 쉼터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 유형이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대분류로 유지될 수 있었다.

다만 초기 새로운 항목이다보니 1차 델파이에 들어간 노숙 항목은 비교적 낮은 타당도(3.9점)와 CVR(0.3) 수준을 보였다. 이 항목에 대해 기타 의견을 통해 노숙과 주거빈곤을 주거불안정 개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연구진을 이를 반영하여 '주거빈곤 및 불안정'으로 이 개념을 포괄하였다. '경제적 빈곤(요금)'을 '경제적 결핍'이라는 항목으로 수정하라는 의견도 반영하여 2차 델파이를 시행하였고 모두 높은 타당도와 CVR 수준을 보여줘 1차 델파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델파이에서는 빈곤 및 경제적 결핍의 소분류의 항목이 모호하였으나 1차 조사의 기타 의견을 통해 개선된 의

료, 교육, 여가, 채무 등 다차원적 빈곤과 결핍의 항목들을 정리하여 소분류로 제시하게 되는 개선도 이루어졌다.

표 34. 빈곤 및 경제적 결핍 중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1차, 2차)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항목	타당도 평균	CVR
노숙	3.9	0.3	(삭제)	-	-
경제적빈곤(요금)	4.2	0.5	경제적 결핍	4.7	0.9
주거 빈곤	4.4	0.8	주거빈곤 및 불안정	4.7	0.9

다. 청소년 문제 유형 소분류

전문가들은 소분류를 나누는 것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실무적으로 데이터에 입력할 때 소분류까지 입력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과 체계성을 위해 다양한 소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구진은 체계적인 호소문제 구분을 위하여 소분류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1차 조사 당시에는 모든 영역에 대한 소분류를 제시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1차 조사에서 현재까지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전반적으로 받은 후 2차 조사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 때문에 소분류에 대한 결과는 델파이조사 결과라기보다는 전문가 의견조사에 가까운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소분류는 양이 너무 많아 응답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분류 항목 하나 하나에 대한 타당성을 물어보는 대신 중분류 수준의 묶음으로 타당성을 물어보았다. 보완을 위하여 이에 대한 기타 의견도 함께 받아 향후 개선을 위해 정리하였다.

1) 정신건강

정신건강 영역은 1차 대분류의 '정신건강'과 '성격'이 합쳐졌고 이에 따라 소분류까지 가장 세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영역은 정신의학, 심리학 등에서 정교하게 구분된 진단분류 체계와도 관련이 있다. 다만, 이 영역에서도 아직 하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중분류도 있는데 '비자살적 자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소분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향후 시스템을 마련할 때 기계적으로 하위 분류를 3단계로 할 것인지, 분류 상 편의를

위하여 2단계에 놓되 하위 분류를 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 35. 정신건강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정신건강	자살	자살사고(자살생각)
		자살시도
	비자살적 자해	-
	우울	우울(위축)
	불안/강박	불안
		공포
		공황
		강박
	품행 및 공격행동	품행
		반항
		공격행동
	외상 후 스트레스	분노조절
		-
	사고문제	정신증
		편집증
	신체화 문제	망상
		신체화 증상(건강염려)
	발달문제	섭식(폭식, 식욕 부진 등)
		지적 발달(경계선 지능 등)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자폐스펙트럼		
부적응적 성격문제	틱장애	
	편집적/과민한 성격	
	충동적/공격적 성격	
	완벽성향/경직된 성격	
	낮은 자존감	
	자아정체감 혼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성격 불만족
	또래관계	친구관계 선후배관계
	이성관계(연인관계)	-
	교사(학교, 학원, 청소년 기관 등) 관계	학교 교사 학원 및 기관 지도자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부모이혼, 부모간 갈등 등) 형제관계
	온라인상 관계	친척 랜덤채팅 등 온라인 동호회
	직장관계	직장(아르바이트) 상사 직장(아르바이트) 동료

정신건강 영역의 소분류 체계 타당도를 보면 모든 중분류에서 타당도 점수와 CVR이 긍정적인 수준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중분류 이후 하위 분류가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기계적인 구분보다는 항목에 따른 세부 항목 분류가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6. 정신건강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부적응적 성격문제	4.4	0.8
신체화 문제	4.7	0.9
품행 및 공격행동	4.7	0.9
우울	4.8	0.9
외상후스트레스	4.8	0.9
사고문제	4.8	1.0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비자살적 자해	4.8	1.0
자살	4.9	1.0
불안/강박	4.9	1.0
발달문제	4.9	1.0

※ 비교: 중분류 내의 소분류 항목군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임

2)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분류는 1차와 2차 사이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었다. 무관계를 고립 등 관계 단절로 표현한 것이 2차 조사에서 중분류의 타당도를 높이는 요인이었다. 이 영역에서는 이성관계를 연인관계로 표현을 했다가 다시 이성관계(연인관계)로 표기한 항목이 있는데 이는 최근의 성적지향에 따른 파트너 관계를 단지 이성관계로 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보 입력의 편의와 직관을 위하여 이성관계와 연인관계를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표 37. 대인관계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 대인관계	고립 등 관계단절	고립	
		관계단절	
		대인기피	
	또래관계	은둔	
		친구관계	
		선후배관계	
	이성관계(연인관계)	-	
		교사(학교, 학원, 청소년 기관 등) 관계	학교 교사
			학원 및 기관 지도자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부모이혼, 부모간 갈등 등)			
형제관계			
친척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온라인상 관계	랜덤채팅 등 온라인 동호회
	직장관계	직장(아르바이트) 상사 직장(아르바이트) 동료

이와 같은 분류 결과 모든 중분류에서 소분류가 타당하다는 응답이 도출되었고 CVR 결과도 양호하였다. 모든 항목의 타당도가 타당한 편임을 의미하는 4점 이상으로 나타났고, 가족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청소년의 관점에서는 '부부관계'라는 표현 보다는 '부모관계'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8. 대인관계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교사(학교, 학원, 청소년 기관 등) 관계	4.4	0.7
직장관계	4.4	0.8
온라인상 관계	4.5	0.9
고립 등 관계단절	4.6	0.8
또래관계	4.7	0.9
이성관계(연인관계)	4.7	0.9
가족관계	4.7	1.0

※ 비교: 중분류 내의 소분류 항목군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임

3) 학업 및 진로

학업과 진로 영역의 대분류와 중분류는 지난 델파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었으나, 소분류에 대해서는 보다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학업 및 학교생활 문제'가 학업(성적)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학교적응 등 학교생활 등으로 제시되었는데 '학교적응 등 학교생활'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업중단문제, 진로(진학) 문제, 취업 및 창업 문제의 소분류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업중단 이전의 고민은 '학업 및 학교생활 문제'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표 39. 학업 및 진로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 학업 및 진로	학업 및 학교생활 문제	학업(성적)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학교적응 등 학교생활
	학업 중단 문제	학업중단 결정(중단 전)
		학업중단 후 생활, 진로(중단 후)
	진로(진학) 문제	진로(진학) 탐색 및 준비
		진로(진학) 결정
	취업 및 창업	취업 준비
		실업 및 일자리 불안정
		창업 준비
노동인권 관련 고민 (급여 미지급 등 노동인권 침해)		

표40. 학업 및 진로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학업 및 학교생활 문제	4.0	0.4
학업중단 문제	4.3	0.7
취업 및 창업	4.6	0.9
진로(진학) 문제	4.6	1.0

※ 비교: 중분류 내의 소분류 항목군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임

4) 과의존·중독

과의존과 중독은 대분류-중분류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진 영역이었다. 하위 영역 역시 모든 항목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타났고 CVR도 1.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영역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 과의존/중독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4. 과의존/중독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쇼핑
		SNS
		영상 시청
	물질 사용(흡연, 음주, 약물 등)	흡연
		음주
		약물 등 환각물질
	도박	온라인(사이버) 도박
		오프라인 도박

표 42. 과의존/중독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인터넷/스마트폰	4.6	1.0
도박	4.7	1.0
물질사용 (흡연, 음주, 약물 등)	4.8	1.0

※ 비고: 중분류 내의 소분류 항목군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임

5) 폭력피해

폭력 피해 영역 역시 소분류에 대한 타당도가 높게 나타났고 CVR도 합의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성폭력, 학교(청소년)폭력, 아동학대 및 방임, 가정폭력 등의 중분류 하위의 소분류가 모두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3. 폭력피해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5. 폭력피해	가정폭력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위협
	아동학대 및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학교(청소년)폭력	신체폭력(폭행, 상해, 감금, 유인 등)
		언어폭력(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강요(숙제 및 게임 대행, 뺑서틀 등)
		금품갈취(절도, 사기, 갈취 등)
		따돌림
		사이버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디지털성폭력

표 44. 폭력피해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가정폭력	4.6	0.8
아동학대 및 방임	4.7	0.8
학교(청소년) 폭력	4.7	1.0
성폭력	4.9	1.0

※ 비교: 중분류 내의 소분류 항목군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임

6) 폭력가해 및 비행

폭력 가해 영역 역시 소분류에 대한 타당도가 높게 나타났고 CVR도 합의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새로 추가된 '비행' 중분류의 소분류에 대한 합의도 타당한 수준이었다.

표 45. 폭력가해 및 비행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정폭력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위협
청소년폭력		신체폭력(폭행, 상해, 감금, 유인 등)
		언어폭력(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강요(숙제 및 게임 대행, 뺑셔틀 등)
		금품갈취(절도, 사기, 갈취 등)
		따돌림
6. 폭력가해 및 비행		사이버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디지털성폭력
비행		단순 가출
		성인사이트 접속 및 시청
		교칙위반
		비행친구와 어울림
		환각물질 사용(단기)

표 46. 폭력가해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비행	4.5	0.8
가정폭력	4.8	0.9
청소년폭력	4.8	1.0
성폭력	4.9	1.0

※ 비교: 중분류 내의 소분류 항목군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임

7) 성

성 영역의 타당도는 '성건강 및 성교육'이 중분류의 타당성과 유사하게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타당도나 CVR 수준에서는 합의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역들의 타당도와 CVR 정도 모두 합의 가능한 수준이었고, 특히 임신/출산/낙태와 같이 중분류 이후 소분류가 제시되지 않은 항목 역시 타당성이 높게 나타나 주제에 따라 중분류 수준에서 항목이 제시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7. 성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7. 성	성건강 및 성교육	성병
		성교육(보호자 대상)
		성지식 부족(청소년 대상)
	성매매	자발적
		강요
	성적충동/성욕구	자위행위
		성관계
		이상성행동
	임신/출산/낙태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혼란	성적지향적 혼란
		성별정체성 혼란
	성역할 갈등/성차별	성역할 갈등
		성차별

표 48. 성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성건강 및 성교육	4.3	0.6
성매매	4.5	0.8
임신/출산/낙태	4.6	0.9
성적충동/성욕구	4.7	0.8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혼란	4.7	0.8
성역할 갈등/성차별	4.7	0.9

※ 비교: 중분류 내의 소분류 항목군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임

8)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신체 건강 및 신체 인식에서도 중분류의 타당성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중분류의 '건강관련 행동'의 타당도와 CVR 점수가 합의에 이르는 수준이었으나 상대적으로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에서도 건강관련 행동 소분류가 합의에 이르는 수준이기는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문제행동 중심의 분류체계에서의 '건강 관련 행동'이라는 주제의 타당성을 보여주거나, 하위 분류체계의 보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9.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8.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신체인식(외모 고민)	키, 몸무게 등 성장 관련
		외모 차별 및 불만족 관련
	장애 및 만성질환	신체 장애
		신체 질환(만성 질환)
건강관련 행동	운동 부족	
	정기적 운동 지식(건강 증진) 수면	

표 50.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건강관련 행동	4.2	0.6
신체인식(외모 고민)	4.5	0.9
장애 및 만성질환	4.6	0.9

※ 비고: 중분류 내의 소분류 항목군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임

9) 빈곤 및 경제적 결핍

마지막으로 빈곤 및 경제적 결핍 영역은 1차 조사에서의 의견 반영 이후 타당도와 CVR 수준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경제적 결핍의 소분류 항목을 다양하게 정리하여 컴퓨터 등의 필요에 맞게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표 51. 빈곤 및 경제적 결핍 영역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9. 빈곤 및 경제적 결핍	경제적 결핍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식이나 영양 결핍
		옷, 신발 등 결핍
		위생용품 결핍 (생리대, 마스크, 소독제 등)
		의료 미충족(의료 결핍)
		여가·문화생활 결핍
	주거 빈곤 및 불안정	교육적 결핍(교육에 필요한 기기, 적절한 교육 기회, 등록금, 학원비 등)
		채무(빚)
		과밀주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불안정 주거(고시원, 반지하 등)
		노숙
		가출팸

표 52. 빈곤 및 경제적 결핍 영역 소분류 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2차)

2차 델파이		
항목	타당도 평균	CVR
경제적 결핍	4.5	0.8
주거빈곤 및 불안정	4.5	0.8

※ 비교: 중분류 내의 소분류 항목군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임

라.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한 최종 호소문제 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발된 최종 호소문제 유형 분류는 다음의 표 53과 같다.

표 53. 최종 호소문제 유형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정신건강	자살	자살사고(자살생각)
		자살시도
	비자살적 자해	-
	우울	우울(위축)
		불안
	불안/강박	공포
		공황
		강박
	품행 및 공격행동	품행
		반항
		공격행동
	외상 후 스트레스	분노조절
		-
	사고문제	정신증
편집증		
신체화 문제	망상	
	신체화 증상(건강염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발달문제	섭식(폭식, 식욕 부진 등)
		지적 발달(경계선 지능 등)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자폐스펙트럼
		틱장애
	부적응적 성격문제	편집적/과민한 성격
		충동적/공격적 성격
		완벽성향/경직된 성격
		낮은 자존감
		자아정체감 혼란
	또래관계	성격 불만족
		친구관계
	이성관계(연인관계)	선후배관계
		-
	교사(학교, 학원, 청소년 기관 등) 관계	학교 교사
학원 및 기관 지도자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부모이혼, 부모간 갈등 등)	
	형제관계	
온라인상 관계	친척	
	랜덤채팅 등	
직장관계	온라인 동호회	
	직장(아르바이트) 상사	
2. 대인관계	직장(아르바이트) 동료	
	고립	
	고립 등 관계단절	
	관계단절	
	대인기피	
또래관계	은둔	
	친구관계	
	선후배관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성관계(연인관계)	-
	교사(학교, 학원, 청소년 기관 등) 관계	학교 교사 학원 및 기관 지도자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부모이혼, 부모간 갈등 등) 형제관계 친척
	온라인상 관계	랜덤채팅 등 온라인 동호회
	직장관계	직장(아르바이트) 상사 직장(아르바이트) 동료
3. 학업 및 진로	학업 및 학교생활 문제	학업(성적)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학교적응 등 학교생활
	학업 중단 문제	학업중단 결정(중단 전) 학업중단 후 생활, 진로(중단 후)
	진로(진학) 문제	진로(진학) 탐색 및 준비 진로(진학) 결정
	취업 및 창업	취업 준비 실업 및 일자리 불안정 창업 준비
		노동인권 관련 고민 (급여 미지급 등 노동인권 침해)
		게임
4. 과의존/중독	인터넷/스마트폰	쇼핑 SNS
		영상 시청
		흡연
	물질 사용(흡연, 음주, 약물 등)	음주
		약물 등 환각물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5. 폭력피해	도박	온라인(사이버) 도박
		오프라인 도박
	가정폭력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위협
	아동학대 및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학교(청소년)폭력	방임
		신체폭력(폭행, 상해, 감금, 유인 등)
		언어폭력(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강요(숙제 및 게임 대행, 빵셔틀 등)
금품갈취(절도, 사기, 갈취 등)		
따돌림		
사이버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6. 폭력가해 및 비행	가정폭력	디지털성폭력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청소년폭력	경제적 위협
		신체폭력(폭행, 상해, 감금, 유인 등)
		언어폭력(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강요(숙제 및 게임 대행, 빵셔틀 등)
		금품갈취(절도, 사기, 갈취 등)
		따돌림
		사이버폭력
		스토킹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7. 성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디지털성폭력
	비행	단순 가출
		성인사이트 접속 및 시청
		교칙위반
		비행친구와 어울림
		환각물질 사용(단기)
	성건강 및 성교육	성병
		성교육(보호자 대상)
		성지식 부족(청소년 대상)
	성매매	자발적
		강요
성적충동/성욕구	자위행위	
	성관계	
	이상성행동	
임신/출산/낙태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혼란	성적지향적 혼란	
	성별정체성 혼란	
성역할 갈등/성차별	성역할 갈등	
	성차별	
신체인식(외모 고민)	키, 몸무게 등 성장 관련	
	외모 차별 및 불만족 관련	
	신체 장애	
8.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장애 및 만성질환	
	신체 질환(만성 질환)	
	운동 부족	
건강관련 행동	정기적 운동 지식(건강 증진)	
	수면	
9. 빈곤 및 경제적	경제적 결핍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식이나 영양 결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결핍	주거 빈곤 및 불안정	옷, 신발 등 결핍
		위생용품 결핍 (생리대, 마스크, 소독제 등)
		의료 미충족(의료 결핍)
		여가·문화생활 결핍
		교육적 결핍(교육에 필요한 기기, 적절한 교육 기회, 등록금, 학원비 등)
		채무(빚)
		과밀주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불안정 주거(고시원, 반지하 등)
		노숙
		가출팸

마. 시사점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호소문제 유형 분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이 연구의 분류체계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나, 소분류의 체계적 구축 등 아직 보완 사항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델파이 조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소문제는 청소년들이 상담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욕구(needs)나 주제(issue)에 가까우나 문제유형 분류는 문제행동(problem behavior)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혼란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칫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도 이것을 '문제'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는 청소년들이 고민으로 호소하는 사안이나 주제에 대한 분류 체계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들은 호소문제는 청소년안전망 등 서비스 지원체계가 확대되면서 함께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분류에서 장애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호소문제가 누락되어 있었던 부분을 추가한 것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고, 빈곤 및 물질적 결핍 등도 그동안의 호소문제 체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기타'로 처리되어 온 많은 문제들 중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기반하여 서비스 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호소문제는 더 세분화된 것이 있고 아직 세분화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는 향후 시스템을 마련할 때 기계적으로 하위분류를 3단계로 할 것인지, 분류 상편의를 위하여 2단계에 놓되 하위분류를 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기계적인 세분화보다는 대분류와 중분류 차원에서 제시하고, 향후 세분화시키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델파이조사는 체계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 이 결과는 합리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더 적합한 호소문제 유형분류체계로 수정 보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변화된 청소년 문제유형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상담 개입을 위해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김진숙과 강진구(2000)에 제안에 따라 기술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를 분석하고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이후 CYS-net 청소년 문제 분석, FGI 실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2010년 이후 청소년 문제 변화 양상을 보기 위해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총 6개년의 CYS-net 입력 자료를 분석하였다. 6개년 자료의 전체 대상 964,056명 중 학부모, 성인, 저연령 아동과 결측값을 제외한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786,938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이때 2000년 개발된 문제유형분류체계로 설계된 CYS-net의 문제유형분류(대분류 10개, 중분류 67)가 최근 청소년 문제를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는바, 연구진의 합의를 통해 기존 대분류를 16개로, 소분류를 52개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2021년을 제외한 모든 년도에서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 중 대인관계, 진로, 미디어중독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 이후 2021년은 미디어중독 문제, 대인관계 문제, 내재화 문제, 가족 갈등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문제가 코로나 이후로 다른 양상임을 보여준다. 주목할 것은 모든 년도에서 청소년 문제 유형을 특정할 수 없는 기타 값이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CYS-net에서 반영할 수 없는 문제유형이 다수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문제유형분류체계의 내용구성을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후 내용분석과 연구진 합의를 통해 청소년문제유형분류 초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학계 및 현장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2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최종 개발될 문제유형분류체계가 2023년부터 기존 종합상담시스템 CYS-Net를 대신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의 문제유형분류로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술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현장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9개의 대분류, 43개의 중분류, 133개의 소분류 문제유형 체계가 도출되었다.

최종 확정된 문제유형 분류체계가 김진숙과 강진구(2000)의 문제유형 분류(대분류 10

개, 중분류 67개)와 CYS-net 문제유형분류(대분류 9개, 중분류 66개)와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먼저, 기존 문제유형 분류 체계는 대분류와 소분류의 2차원으로 구성이 된 반면, 문제를 더 세분화하여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문제유형은 좀 더 세분화하였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문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 문제유형 분류체계에 비해 대분류가 최근 상담현장에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좀 더 가깝게 분류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문제유형 분류에서는 학교폭력이 포함된 일탈 및 비행이라는 대분류에 포함되어 있어 폭력 피해 경험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문제는 반영되어 있지 못했다. 반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대분류에서는 폭력 피해와 폭력 가해를 대범주에서 구분하였다. 또한 기존 문제유형 분류에서는 성격과 정신건강을 구분하였는데 성격이라는 대분류는 정신건강 문제와 상담과정에서 동반하여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분리하기가 어렵다. 반면 새로운 문제유형 대분류에는 정신건강이라는 대분류 안에 성격관련 문제유형을 중분류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청소년이 호소하는 문제 중심으로 분류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문제 유형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체계적인 상담개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발달상의 문제에서부터 최근 급증한 청소년 문제까지 다변화된 청소년 문제를 유목화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0년 청소년 문제유형분류체계가 개발된 이후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2000년 이전은 학업중단이 청소년의 심각한 문제로 취급되었지만 현재 학교밖청소년은 그 자체를 위협요인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내용과 관점이 매우 다양화되고 복잡해진 시점에서 청소년 문제유형분류체계의 구축은 청소년 문제유형에 대한 개념에서의 합의를 이끌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원인, 개입방안 등 이론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본개념을 제공한다.

또한, 문제유형분류체계는 2023년부터 운영되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문제유형분류를 구성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기초 정보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센터까지 전국 800여개 기관에서 활용될 사례관리 전산시스템이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는 청소년 문제, 특히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자료 분석과 함께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호소문제에 기반한 문제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실효성

있는 상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실제 상담서비스의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호소하는 문제를 유목화함으로써 상담목표의 설정과 개입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를 토대로 문제유형별, 지역별, 기관별, 집단별 상담개입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먼저,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유형 체계가 FGI와 델파이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소분류의 경우 1차 델파이에서 모든 영역의 소분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2차 델파이에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분류 결과는 델파이 조사 결과라기 보다는 전문가 의견조사에 가까울 수 있다. 따라서 소분류 체계에 대한 보완과 타당화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사례관리 입력시스템 활용 시, 소분류까지 분류하여 입력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에는 대분류와 중분류까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에 대한 지침이 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에서 호소문제로 입력할 경우 상담자나 사례관리자들이 정확하고 일관적으로 사례의 문제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문제유형 분류에 기반한 위기수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문제유형은 위기수준과 상관없이 문제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장면에서 자살시도 문제와 진로탐색 문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문제는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유형과 관련된 위기수준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개입할 문제의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근모, 이준기 (2015). 청소년 가출관련변인의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6(2), 115-14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쉽센터 (2019).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교육부 (2022).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부.
- 구분용, 금명자, 김동일, 김동민, 남상인, 안현의, 주영아, 한동우 (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권미경 (201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10(3), 39-76.
- 김경희, 김수아, 김은경 (2020). 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정책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12(2), 257-289.
- 김광일 (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I). **정신건강연구**, 1, 1-40.
- 김동일, 이윤희, 이주영, 김명찬, 금창민, 남지은, 정여주 (2012). 미디어 이용 대체 보완과 중독: 청소년과 성인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1), 71-88.
- 김병년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208-217.
- 김병석, 이명우, 명대정, 이명경 (1998). **청소년문제 유형분류체계 개발연구 V**.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보영, 이정숙 (2009).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5), 651-661.
- 김성봉 (2012). **문제행동청소년의 가족경험에 대한 통합적 접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세연, 김재철 (2020).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영향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7(7), 159-182.

- 김애라, 조영주, 문희영 (2020).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식·문화 개선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김은경, 홍영오 (2006).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연구보고 06-R13-1).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정현, 정인경 (201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아버지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7, 111-126.
- 김정혜 (2020). 텔레그램 ‘n 번방’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영 (2020). 온라인그룹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4(2), 41-77.
- 김진숙, 이명우, 송수민 (1999). 1999년도 상담경향 분석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진숙, 강진구 (2000). 청소년문제 유형분류체계 개발연구 VII.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진화, 송병국, 고운미, 이채식, 최창욱, 임형백, 양승춘 (2002). 청소년 문제행동론. 서울: 학지사.
- 김창대, 이정운, 이영선, 남상인 (1994). 청소년문제유형분류체계; 기초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창대, 이명우 (1995). 청소년문제 유형분류체계 개발연구 II.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창대, 이명우 (1996) 청소년문제 관계유형분류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형수 (2017). 청소년의 위기 및 문제행동 중복 유형 탐색. **교육치료연구**, 9(3), 425-438.
-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환경적 특성: 공격성, 충동성, 우울, 부모 자녀관계, 주의집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83-393.
- 남윤주, 이숙 (2008). 아동이 지각한 애착과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12(2), 1-16.
- 박성희 (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원미사.
- 방송통신위원회 (2021). 2021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 박은경, 정원미, 전종설 (2019). 청소년 도박에 관한 연구 동향. **청소년복지연구**, 21(1), 103-134.
- 박재황, 김창대, 김동일, 이명우, 박승민, 문수정 (1996). 청소년문제 유형분류체계 개발연

구 III.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방현주, 정혜원 (2020). 청소년 문제행동의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7(4), 43-69.
- 법제처 (2005). 법제처.
- 서미, 김지혜, 이태영, 김은하 (2019). 비자살적 자해와 극복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20(4), 179-207.
- 서창민, 이종훈, 최태영, 김지현, 신임희, 우정민 (2012).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한국형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18(2), 223-230.
- 오세연, 신현주 (2019).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14(4), 133-160.
- 오승환 (2010). 청소년 가출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가출충동과 가출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301-324.
- 양미진, 이자영, 손재환 (2010).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위기 유형 분류. **아시아교육연구**, 11(3), 1-20.
- 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47-162.
- 이민규, 김교현, 김정남 (2003). 도박중독 실태와 도박 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99-414.
- 이봉주, 김동일, 정익중, 유순덕 (2008). 위기청소년개념정립 및 통계화 방안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상균 (2000). 청소년의 도움요청행위와 그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 153-175.
-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81.
- 이어리, 이강이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이 초등학교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1(2), 27-39.
- 이지민, 김영근 (2021). 은둔형 외톨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은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6(2), 61-91.
- 이창호, 이경상 (2013).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259-285.
- 이혜선, 강차연 (2007). 중학생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애착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자**

-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 79-95.
- 장성화, 조경덕 (2010). 청소년의 우울, 대인불안, 학교적응이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1), 285-293.
- 전영천 (2010). 청소년의 음주행동 및 흡연행동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 89-109.
- 정문경 (2015).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 195-211.
- 정묘순, 서수균 (2014). 청소년 자살시도 예측변인: 자살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2), 145-171.
- 정승아, 안동현, 정선녀, 정윤경, 김윤영 (2008).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검사 개발 연구. **신경정신의학**, 47(2), 168-176.
- 정여주, 두경희 (201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원인, 결과, 개입에 대한 연구 동향: 예방상담학적 관점에서. **청소년학연구**, 21(8), 373-406.
- 정철호 (2009).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소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4), 367-394.
- 조운오 (2013). 청소년의 사이버불링피해 실태 및 피해 유발 요인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4), 303-328.
- 조희정 (2014).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 서울: 미래인.
-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지승희, 양미진, 이자영, 김태성 (2006). **위기청소년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최미숙 (2014).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희망, 또래관계기술 및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7). **도박문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따른 청소년 도박예방 모델 개발**. 서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코로나19로 바꾼 일상: 청소년, 보호자 체감도 조사 및 대응방안.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5(2), 1-14.
- 한숙희, 정희진, 조아미 (2020).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루밍 (Grooming, 길들이기) 관례분석. *청소년문화포럼*, 145-171.
-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 (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황혜원, 박현순, 신정아 (2006).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생태체계적 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아동과 권리*, 10(4), 497-526.
- Achenbach, T. M. (1982). Assessment and taxonomy of children's behavior disorders. *In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pp. 1-38). Springer, Boston, MA.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6). *Manual for the Teacher's Report Form and teacher version of child behavior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yre, C., & Scally, A. J. (2014). Critical values for Lawshe's content validity ratio: revisiting the original methods of calcula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7(1), 79-86.
- Burt, M. R. (1992). Comprehensive Service Integration Programs for At Risk Youth. Final Report.
- Calado, F., Alexandre, J., & Griffiths, M. D. (2017). Prevalence of adolescent problem gambling: A systematic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gambling studies*, 33(2), 397-424.
- Gresham, F. M., & Gansle, K. A. (1992). Misguided assumptions of DSM-III-R: Implications for school psychological practi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7(2), 79.
- Grenade, L., & Boldy, D. (2008).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among older people: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in community and residential settings. *Australian Health Review*, 33(3), 468-478.
- Gupta, R., & Derevensky, J. L. (2000). Adolescents with gambling problems: From research to treatment.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6(2), 315-342.
- Hall-Lande, J. A. (2011). *Social isolation as a predictor of future risk: A longitudinal study*. University of Minnesota.
- Havens, B., & Hall, M. (2001).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the health of older adults in

- Manitoba, Canada. *Indian Journal of Gerontology*, 15, 126-144.
- Hewitt, L. E., & Jenkins, R. L. (1946). Fundamental patterns of maladjustment; the dynamics of their origin; a statistical analysis based upon five hundred case records of children examined at the Michigan Child Guidance Institute.
- Hoghughi, M., & Hoghughi, M. S. (1992). *Assessing child and adolescent disorders: A practice manual*. Sage.
- Hooper, S. R., Hynd, G. W., & Mattison, R. E. (Eds.). (1992). *Child psychopathology: Diagnostic criteria and clinical assessment*.
- Hinduja, S., & Patchin, J. W. (2008).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29(2), 129-156.
- Hinduja, S., & Patchin, J. W. (2010). Bullying, cyberbullying, and suicid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4(3), 206-221.
- Joiner, T. E.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Harvard University Press.
- Kazdin, A. E. (1983). Psychiatric diagnosis, dimensions of dysfunction, and child behavior therapy. *Behavior Therapy*, 14(1), 73-99.
- Krueger RA & Casey MA (2000)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Lavik, N. J. (1973). The classification problem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49(2), 131-147.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Lorr, M. (1961). Classification of the behavior disord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12(1), 195-216.
-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4), 425-444.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rter, E. H., & McWhirter, R. J. (2004).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Belmont, CA: Brooks/Cole-Thomson Learning.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rter, A. M., & McWhirter, E. H. (2016).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6th ed. Thomson Brooks/Cole Publishing Co.
- OECD. (1995). *Our children at risk*, Paris: OECD.

- Quay, H. C. (1986). A critical analysis of DSM-III as a taxonomy of psychopatholog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T. Millon & G. L. Klerman (Eds.), *Contemporary directions in psychopathology: Toward the DSM-IV* (pp. 151-165). The Guilford Press.
- Raisamo, S., Halme, J., Murto, A., & Lintonen, T. (2013). Gambling-related harms among adolescents: a population-based study.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9*(1), 151-159.
- Schneider, S. K., O'donnell, L., Stueve, A., & Coulter, R. W. (2012). Cyberbullying, school bully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regional census of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1), 171-177.
- Splevins, K., Mireskandari, S., Clayton, K., & Blaszczynski, A. (2010). Prevalence of adolescent problem gambling, related harms and help-seeking behaviours among an Australian population.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6*(2), 189-204.
- Tanguay, P. E. (1984). Toward a new classification of serious psychopathology in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3*(4), 373-384.
- Willard, N. (2006). Flame Retardant: Cyberbullies Torment Their Victims 24/7: Here's How to Stop the Abuse. *School Library Journal, 52*(4), 54.
- Winters, K. C., Stinchfield, R. D., Botzet, A., & Anderson, N. (2002). A prospective study of youth gambling behavior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6*(1), 3.

부 록

1.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질문지
 2. 전문가 델파이조사(1차) 설문지
 3. 전문가 델파이조사(2차) 설문지
-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질문지

【시작 질문】

1. 연구 참여자 소개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지 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4. 최종학력	① 전문학사 졸업 ② 일반학사 졸업 ③ 석사학위 취득(석사졸업) ④ 박사학위 취득(박사졸업) (최종학력 전공:)
5. 소속기관	
6. 관련경력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3년 미만 ④ 3년 이상 4년 미만 ⑤ 4년 이상 5년 미만 ⑥ 5년 이상
7. 직 위	
8. 취득자격 * 중복선택가능	① 청소년지도사1급(국가자격) ② 청소년지도사2급(국가자격) ③ 청소년지도사3급(국가자격) ④ 청소년상담사1급(국가자격) ⑤ 청소년상담사2급(국가자격) ⑥ 청소년상담사3급(국가자격) ⑦ 사회복지사 1급(국가자격) ⑧ 사회복지사 2급(국가자격) ⑨ 임상심리사 1급(국가자격) ⑩ 임상심리사 2급(국가자격) ⑪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 ⑫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 ⑬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⑭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⑮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전환 질문】

1. 사전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의 효율적 사례관리를 위해 신규 문제 유형 분류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주요 질문】

1. 신규(안)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의 구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1-1. 신규(안) “청소년 문제 유형 대분류”에서 변경 또는 추가해야할 문제유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2. 신규(안) “청소년 문제 유형 소분류” 구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2-1. 신규(안) “청소년 문제 유형 소분류”에서 변경 또는 추가해야 할 문제유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3. 청소년 사례 관리를 위해 신규(안)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요?
※ 기존 CYS-Net 호소문제는 한 가지 청소년 문제만 체크되었음
(예: 주요 청소년 문제만 체크, 복수 청소년 문제 체크, 주요 청소년 문제+기타 문제 체크)

4. 청소년 문제유형을 대상(부모·청소년·보호자)에 따라 별도 관리해야 할 필요 여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기존 CYS-Net은 청소년·부모 호소문제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상담 개입 후 상담자가 문제 유형 작성

5.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를 대면·온라인으로 별도 구분하여 다뤄야 할 문제유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대인관계·사이버 대인관계 등)

【마무리 질문】

1.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제언해주실 것은 무엇인가요?

2.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 연구 FGI 사전자료

○ “청소년 문제분류 연구” FGI 목적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상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통합지원연계망 사업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각종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내담자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호소문제, 상담 개입 정보, 연계 기관 등 개입과 관련한 전반 데이터를 CYS-Net에 입력하게 되어 있음. 2006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문제가 변화하고 다각화됨에 따라 향후 효과적인 청소년 사례관리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청소년 문제 유형을 재정립하려고 함.

○ 기존-신규(안) 청소년 호소문제 유형 분류

- (기존) 총 10개의 대분류: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외모, 컴퓨터/인터넷 사용, 기타
 - ※ 대분류에 따른 소분류(기타포함) 83개(부모자녀와의 갈등, 부모의 자녀학대 방치, 자녀의 패륜행위 등)
- (신규(안) 총 10개의 대분류: 폭력피해, 폭력가해 및 비행, 성, 정신건강, 신체건강, 대인관계, 과의존·중독, 학업 및 진로, 빈곤 및 경제적 결핍, 기타
 - ※ 대분류에 따른 소분류(기타포함) 76개(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방임, 학교폭력 등)

○ 신규(안) 주요 내용

- 기존 level1 ‘가족’ 대분류 삭제 → 신규 level1 ‘폭력피해’, ‘폭력가해 및 비행’, ‘대인관계’ 하위범주로 이동
-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사항 ‘폭력피해’, ‘폭력가해 및 비행’ 하위범주로 이동
- ‘신체건강’, ‘빈곤 및 경제적 결핍’ 대분류 신규 추가

기존 청소년 호소문제			신규 청소년 호소문제 개정(안)			
level1	level2	level3	level1	level2	level3	*참고
1. 가족	부모자녀간의 갈등		1. 폭력 피해	가정폭력		
	부모외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아동학대 및 방임		

기존 청소년 호소문제			신규 청소년 호소문제 개정(안)				
level1	level2	level3	level1	level2	level3	*참고	
	부모간의 갈등/폭력			학교폭력			
	부모의 자녀학대/방치			사이버폭력		신규추가	
	자녀의 패륜행위			성폭력(사이버폭력 제외)			
	기타			기타			
2. 일탈 및 비행	가출		2. 폭력 가해 및 비행	지위비행	흡연/음주		
	학교폭력				기타		
	학교외 폭력			경비행	단순 가출		
	금품갈취/절도/도박				성인사이트	신규추가	
	음주/흡연/악물오남용				무단결석	신규추가	
	늦은귀가/잠은외박				기타		
	비행친구와 어울림			중비행	폭력		
	기타				금품갈취/절도		
3. 학업/진로	학업흥미/학업동기 부족		3. 성		성건강 및 신체구조	사기(사이버 포함)	신규추가
	학습능력 부족					환각물질 사용	신규추가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기타			
	학교생활 부적응			성병/에이즈			
	등교거부			성적충동/성욕구	성지식		
	해외/귀국 청소년 부적응				기타		
	진로의식부족				자위행동		
	진로정보탐색				성관계		

기존 청소년 호소문제			신규 청소년 호소문제 개정(안)				
level1	level2	level3	level1	level2	level3	*참고	
4. 성	진로변경 및 전환				이상성행동		
	검정고시				기타		
	기타			임신/출산/낙태			
	성지식/정보부족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신규추가	
	성욕구/성충족(자위행위)			성역할/성차별(양성평등)		신규추가	
	임신/피임			기타			
	낙태			4. 정신 건강		자살사고	
	성폭력/성희롱				자살·자해(자기손상)	자살시도(자살계획)	
	근친					비자살적 자해	
	음란물				우울	우울(위축)	
	이상성행동		불안/강박			불안	
	성병					공포	
	성정체감					공황	
	성매매(성매수)					강박	
	자녀의 성교육		품행 및 공격행동			품행	
	기타					반항	
	성상담센터 전용	자위행위				공격행동	
		이성교제			분노조절		
		성폭력_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신규추가	

기존 청소년 호소문제			신규 청소년 호소문제 개정(안)				
level1	level2	level3	level1	level2	level3	*참고	
		성폭력_가해		사고문제	정신증		
		성기능장애			편집증		
		부부성			망상		
		성매매_피해			신체화문제	건강염려	
		성매매_가해				섭식	
		성관계				경계선 지능	신규추가
5. 성격	소극적/과민한 성격		5. 신체 건강	발달문제	주의력결핍		
	충동적/공격적 성격				과잉행동		
	의존적/우유부단한 성격				기타		
	자기중심적/독단적 성격		6. 대인 관계	무연(무관계)	고립	신규추가	
	완벽성향/경직된 성격				관계단절		
	편집적 성격			또래관계			
	기타			연인관계		명칭 변경	
6. 대인 관계	따돌림 및 왕따		6. 대인 관계	교사(학교, 학원등)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모자녀와의 갈등		
	이성교제				부모 간 갈등		
	교사와의 관계				부모 외 다른 구성원과의 갈등		
	부모외 어른과의 관계						

기존 청소년 호소문제			신규 청소년 호소문제 개정(안)				
level1	level2	level3	level1	level2	level3	*참고	
	기타			온라인상 관계		신규추가	
7. 정신건강	우울/위축		7. 과의존·중독	기타			
	강박/불안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반항성 및 품행성문제				SNS		
	충동(분노)조절 문제				쇼핑		
	자해				음란물		
	자살문제			도박		신규추가	
	섭식문제		8. 학업 및 진로	기타			
	수면문제			학업(성적)			
	주의산만 및 과잉행동			학교생활			
	신체화문제			진학(상위교육 진학)			
	발달문제			진로탐색(진로의식)			
	정신분열 및 정신증적 문제			진로역량(자격/훈련)			
	기타			진로변경			
8. 생활 습관/ 외모	나태한 생활		9. 빈곤 및 경제적 결핍	취·창업준비			
	소비생활 문제			기타			
	외무불만족			경제적 빈곤(요금)	물질적 결핍	신규추가	
	기타		교육적 결핍				
9. 컴퓨터/인터넷 사용	인터넷 게임 과다			주거 빈곤			

기존 청소년 호소문제			신규 청소년 호소문제 개정(안)			
level1	level2	level3	level1	level2	level3	*참고
	인터넷 채팅 과다			노숙		
	인터넷 쇼핑 과다			기타		
	인터넷 음란물 과다		10. 기타			
	사이버 범죄					
	스마트폰 과다					
10. 기타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 전문가 델파이조사(1차)

[참여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 연구 목적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상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통합지원체계망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각종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내담자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호소문제, 상담 개입 정보, 연계 기관 등 개입과 관련한 전반 데이터는 CYS-Net에 입력됩니다. 본 연구는 2023년부터 CYS-Net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쉼터 행정망이 통합됨에 따라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인 개입과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청소년 문제유형을 재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 기존-신규(안)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

- (기존) 총 9개의 대분류: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외모, 컴퓨터/인터넷 사용
- (신규(안)) 총 11개의 대분류: 정신건강, 대인관계, 성격, 학업 및 진로, 과의존, 폭력피해, 폭력가해, 비행, 성, 신체건강 및 신체 인식, 빈곤 및 경제적 결핍

○ 신규(안)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 주요내용

- 기존 대분류 요소 삭제 및 신규추가
 - ‘신체건강’, ‘빈곤 및 경제적 결핍’ 대분류 신규 추가
 - ‘가족’ 대분류 삭제 → ‘폭력피해’, ‘폭력가해’, ‘대인관계’ 대분류 내 하위범주로 이동
 - 기존 ‘일탈 및 비행’ 대분류 삭제 → ‘폭력가해’, ‘비행’ 대분류로 이동
- 중분류 요소 신규추가 및 이동
 - ‘사이버 폭력’, ‘디지털성폭력’,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성역할/성차별(양성평등)’, ‘외상 후 스트레스’, ‘무관계’, ‘온라인상 관계’, ‘도박’
 -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요소 → ‘폭력피해’, ‘폭력가해’ 대분류 내 하위범주로 이동

※ 다음은 기존의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연구진 의견 및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구성된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 체계(안)입니다. 아래의 분류 체계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체크(√)해 주시고, 기타 수정 및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 문제유형에 대한 **대분류** 요소의 타당도를 체크해 주시고, ① ‘추가 또는 삭제’ 및 ② ‘용어 변경’이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기타 의견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1. 정신건강					
2. 대인관계					
3. 성격					
4. 학업 및 진로					
5. 과의존					
6. 폭력피해					
7. 폭력가해					
8. 비행					
9. 성					
10. 신체건강 및 신체 인식					
11. 빈곤 및 경제적 결핍					
<기타의견>					

2. 청소년 문제유형에 대한 **중분류** 요소의 타당도를 체크해 주시고, ① ‘추가 또는 삭제’ 및 ② ‘용어 변경’이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기타 의견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중분류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1. 정신건강	자살					
	비자살적 자해					
	우울					
	불안/강박					
	폭행 및 공격행동					
	외상 후 스트레스					
	사고문제					
	신체화문제					
	발달문제					
<기타의견>						
2. 대인관계	무(無)관계					
	또래관계					
	이성관계(연인관계)					
	교사(학교, 학원등)관계					
	가족관계					
	온라인상 관계					
<기타의견>						

대분류	중분류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3. 성격	소극적·과민한 성격					
	충동적·공격적 성격					
<기타의견>						
4. 학업 및 진로	학업(성적)					
	학교생활					
	진학(상위교육 진학)					
	진로탐색(진로의식)					
	진로역량(자격/훈련)					
	진로변경					
	취·창업준비					
<기타의견>						
5. 과의존	인터넷/스마트폰					
	흡연, 음주, 약물 등					
	도박					
<기타의견>						

대분류	중분류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6. 폭력피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방임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디지털성폭력 제외)					
	디지털성폭력					
<기타의견>						
7. 폭력가해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사이버폭력 제외)					
	디지털성폭력					
<기타의견>						
8. 비행	경비행					
	중비행					
<기타의견>						

대분류	중분류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9. 성	성건강 및 신체구조					
	성매매					
	성적충동/성욕구					
	임신/출산/낙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성역할/성차별(양성평등)					
<기타의견>						
10. 신체건강 및 신체 인식	신체건강					
	외모불만족					
	신체화 증상					
<기타의견>						
11. 빈곤 및 경제적 결핍	경제적 빈곤(요금)					
	주거 빈곤					
	노숙					
<기타의견>						

3. 청소년 문제유형에 대한 소분류에서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요소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정신건강	자살	자살사고(자살생각)
		자살시도
	비자살적 자해	
	우울	우울(위축)
	불안/강박	불안
		공포
		공황
		강박
	품행 및 공격행동	품행
		반항
		공격행동
		분노조절
	외상 후 스트레스	
	사고문제	정신증
		편집증
망상		
신체화문제	건강염려	
	섭식	
발달문제	경계선 지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2. 대인관계	무(無)관계	고립
		관계 단절
	또래관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성관계(연인관계)		
	교사(학교, 학원등)관계		
	가족관계	부모자녀와의 갈등	
		부모 간 갈등	
부모 외 갈등			
	온라인상 관계		
3. 성격	소극적·과민한 성격		
	충동적·공격적 성격		
4. 학업 및 진로	학업(성적)		
	학교생활		
	진학(상위교육 진학)		
	진로탐색(진로의식)		
	진로역량(자격/훈련)		
	진로변경		
	취·창업준비		
5. 과의존	인터넷/스마트폰		
	흡연, 음주, 약물 등	흡연	
		음주	
		약물 등 환각물질	
도박	온라인(사이버) 도박		
	오프라인 도박		
6. 폭력피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방임		
	학교폭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이버폭력	
	성폭력(사이버폭력 제외)	
	디지털성폭력	
7. 폭력가해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디지털성폭력 제외)	
	디지털성폭력	
8. 비행	경비행	단순 가출
		성인사이트
		교칙위반
	중비행	폭력
		금품갈취/절도
		사기(사이버 포함)
		환각물질 사용(단기)
9. 성	성건강 및 신체구조	성병/에이즈
		성교육
		성지식
	성매매	
	성적충동/성욕구	자위행동
		성관계
		이상성행동
	임신/출산/낙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성역할/성차별(양성평등)	
10. 신체건강 및 신체 인식	신체건강	
	외모불만족	
	신체화 증상	
11. 빈곤 및 경제적 결핍	경제적 빈곤(요금)	물질적 결핍
		교육적 결핍
	주거 빈곤	
	노숙	
<기타의견>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전문가 델파이조사(2차) 설문지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 전문가 델파이조사(2차)

[참여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 1차 델파이 조사(n=20) 결과 내용

※ 전체 설문 대상자 응답 결과에 대한 “합의도”와 “수렴도” 산출하여 분류에 대한 합의 유무를 판단하였음

- (대분류) 전체 대분류 11개 중 “성격”을 제외한 10개의 분류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중분류) 1. “정신건강”의 모든 중분류(총 9개)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2. “대인관계”에서 “무관계”를 제외한 5개의 분류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3. “성격”의 모든 중분류(총 2개)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4. “학업 및 진로”에서 “진로”, “진로변경”, “취·창업준비”를 제외한 4개의 분류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5. “과의존”의 모든 중분류(총3개)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6. “폭력피해”의 모든 중분류(총6개)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7. “폭력가해”의 모든 중분류(총5개)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8. “비행”의 모든 중분류(2개)가 **합의되지 않음**
- 9. “성”에서 “성건강 및 신체구조”를 제외한 5개의 분류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10.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에서 “신체화 증상”을 제외한 2개의 분류가 긍정적으로 합의됨
- 11. “빈곤 및 경제적 결핍”에서 “경제적 빈곤” 및 “노숙”을 제외한 “주거빈곤”만 합의됨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른 2차 델파이 조사 추가 수정 내용

- 대분류·중분류 삭제 및 용어 변경
 - (대분류) 1. 델파이 1차에서 합의되지 않은 “성격”과 “비행”을 삭제하고 중분류(“정신건강 내 성격”, “폭력가해 내 비행”)로 이동

2. “과의존”→“과의존/중독”, “폭력가해”→“폭력가해” 및 “비행”으로 명칭 변경

- **(중분류)** 1. “무(無)관계”→“고립 등 관계단절”, “교사(학교, 학원 등)관계”→“교사(학교, 학원, 청소년 기관 등) 관계”, “흡연, 음주 약물 등”→“물질사용(흡연, 음주, 약물 등)”, “학교폭력”→“학교(청소년)폭력”, “경비행+중비행→비행”, “성건강 및 신체구조”→“성건강 및 성교육”, “신체건강”→“신체 인식(외모고민)”, “경제적 빈곤(요금)”→“경제적 결핍”, “주거빈곤+노숙”→“주거빈곤 및 불안정”으로 변경
- 2. “정신건강” 내 “부적응적 성격문제”, “대인관계” 내 “직장관계”, “학업 및 진로” 내 “학업중단 문제”, “신체건강 및 신체 인식” 내 “장애 및 만성질환”과 “건강 관련 행동” 추가
- **(소분류)** 델파이 설문 결과(기타의견)에 따른 소분류 재구성 및 신규 내용 추가

※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한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 체계 수정안입니다. 아래의 분류 체계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체크(√)해 주시고, 기타 수정 및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 문제유형에 대한 대분류 요소의 타당도를 체크해 주시고, ① '추가 또는 삭제' 및 ② '용어 변경'이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기타 의견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안	1차 설문 평가 내용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대분류	정신건강	정신건강						
	대인관계	대인관계						
	학업 및 진로	학업 및 진로						
	과의존	과의존/중독						
	폭력피해	폭력피해						
	폭력가해	폭력가해 및 비행						
	성	성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빈곤 및 경제적 결핍	빈곤 및 경제적 결핍						
<기타의견>								

2. 청소년 문제유형에 대한 **중분류** 요소의 타당도를 체크해 주시고, ① ‘추가 또는 삭제’ 및 ② ‘용어 변경’이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기타 의견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중분류		1차 설문 평가 내용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1차	수정안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1. 정신건강	자살	자살						
	비자살적 자해	비자살적 자해						
	우울	우울						
	불안/강박	불안/강박						
	품행 및 공격행동	품행 및 공격행동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사고문제	사고문제						
	신체화문제	신체화문제						
	발달문제	발달문제						
		부적응적 성격문제						
<기타의견>								

대분류	중분류		1차 설문 평가 내용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1차	수정안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2. 대인관계	무(無)관계	고립등 관계단절						
	또래 관계	또래 관계						
	이성관계(연인관계)	이성관계(연인관계)						
	교사(학교, 학원 등) 관계	교사(학교, 학원, 청소년 기관 등) 관계						
	가족관계	가족관계						
	온라인상 관계	온라인상 관계						
		직장관계						
교사								
<기타의견>								
3. 학업 및 진로	학교생활	학업 및 학교생활 문제						
		학업중단 문제						
	진학(상위교육 진학)	진로(진학) 문제						
	취·창업준비	취업 및 창업						
<기타의견>								

대분류	중분류		1차 설문 평가 내용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1차	수정안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4. 과의존 / 중독	인터넷/스마트폰	인터넷/스마트폰						
	흡연, 음주, 약물 등	물질사용(흡연, 음주, 약물 등)						
	도박	도박						
<기타의견>								
5. 폭력피해	가정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방임	아동학대 및 방임						
	학교폭력	학교(청소년)폭력						
	성폭력(사이버폭력 제외)	성폭력						
<기타의견>								
6. 폭력가해 및 비행	가정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학교(청소년)폭력						
	성폭력(사이버폭력 제외)	성폭력						
	가정폭력	비행	가정폭력					
<기타의견>								

대분류	중분류		1차 설문 평가 내용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1차	수정안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7. 성	성건강 및 신체구조	성건강 및 성교육						
	성매매	성매매						
	성적충동/성욕구	성적충동/성욕구						
	임신/출산/낙태	임신/출산/낙태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성적지향/성별정 체성 혼란						
	성역할/성차별(양 성평등)	성역할 갈등/성차별						
<기타의견>								
8. 신체건강 및 신체인식	신체건강	신체인식(외모고민)						
	신체건강	장애 및 만성질환						
	신체인식	건강관련 행동						
<기타의견>								
9. 빈곤 및 경 제적 결핍	경제적 빈곤(요금)	경제적 결핍						
	주거빈곤	주거빈곤 및 불안정						
<기타의견>								

3. 청소년 문제유형에 대한 **중분류별 소분류** 요소의 타당도를 체크해 주시고, ① ‘추가 또는 삭제’ 및 ② ‘용어 변경’이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기타 의견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호소문제 유형 분류(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반영한 연구진 합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1. 정신건강	자살	자살사고(자살생각)					
		자살시도					
	비자살적 자해	-					
	우울	우울(위축)					
	불안/강박	불안					
		공포					
		공황					
		강박					
	품행 및 공격행동	품행					
		반항					
		공격행동					
		분노조절					
	외상 후 스트레스	-					
	사고문제	정신증					
편집증							
망상							

청소년 호소문제 유형 분류(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반영한 연구진 합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신체화문제	신체화 증상(건강염려)						
		섭식(폭식, 식욕 부진 등)						
	발달문제	지적 발달(경계선 지능 등)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자폐스펙트럼						
		틱장애						
	부적응적 성격문제	편집적/과민한 성격						
		충동적/공격적 성격						
		완벽성향/경직된 성격						
		낮은 자존감						
		자아정체감 혼란						
								성격 불만족
	2. 대인관계	고립 등 관계단절						고립
								관계단절
								대인기피
은둔								
또래관계		친구관계						
		선후배관계						

청소년 호소문제 유형 분류(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반영한 연구진 합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이성관계(연인관계)	-						
	교수, 학원, 청소년기관 등 관계	학교 교사						
		학원 및 기관 지도자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 이혼, 부모간 갈등 등)						
		형제관계						
		친척						
	온라인상 관계	랜덤채팅 등						
		온라인 동호회						
	직장관계	직장(아르바이트) 상사						
직장(아르바이트) 동료								
3. 학업 및 진로	학업 및 학교생활 문제	학업(성적)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학교적응 등 학교생활						
	학업중단 문제	학업중단 결정(중단전)						
		학업중단 후 생활, 진로(중단 후)						
	진로(진학) 문제	진로(진학) 탐색 및 준비						

청소년 호소문제 유형 분류(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반영한 연구진 합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취업 및 창업	진로(진학) 결정					
		취업 준비					
		실업 및 일자리 불안정					
		창업 준비 노동인권 관련 고민 (급여 미지급 등 노동인권 침해)					
4. 과의존/중독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쇼핑					
		SNS					
		영상 시청					
	물질 사용(흡연, 음주, 약물 등)	흡연					
		음주					
		약물 등 환각물질					
	도박	온라인(사이버) 도박					
오프라인 도박							
5. 폭력피해	가정폭력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위협					

청소년 호소문제 유형 분류(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반영한 연구진 합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아동학대 및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학교(청소년)폭력	신체폭력 (폭행, 상해, 감금, 유인 등)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강요 (숙제 및 게임 대행, 뺑서틀 등)					
		금품갈취 (절도, 사기, 갈취 등)					
		따돌림					
		사이버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디지털성폭력					

청소년 호소문제 유형 분류(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반영한 연구진 합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6. 폭력가해 및 비행	가정폭력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위협					
	청소년폭력	신체폭력 (폭행, 상해, 감금, 유인 등)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강요 (숙제 및 게임 대행, 뺑서들 등)					
		금품갈취 (절도, 사기, 갈취 등)					
		따돌림					
		사이버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디지털성폭력					
	비행	단순 가출					

청소년 호소문제 유형 분류(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반영한 연구진 합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성인사이트 접속 및 시청					
		교칙위반					
		비행친구와 어울림					
		환각물질 사용(단기)					
7. 성	성건강 및 성교육	성병					
		성교육(보호자 대상)					
		성지식 부족(청소년 대상)					
	성매매	자발적					
		강요					
	성적충동/성욕구	자위행동					
		성관계					
		이상성행동					
	임신/출산/낙태	-					
	성적지향성/성별정체성 혼란	성적지향적 혼란					
		성별정체성 혼란					
	성역할 갈등/성차별	성역할 갈등					
		성차별					

청소년 호소문제 유형 분류(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반영한 연구진 합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8. 신체건강 및 신체 인식	신체 인식(외모 고민)	키, 몸무게 등 성장 관련					
		외모 차별 및 불만족 관련					
	장애 및 만성질환	신체 장애					
		신체 질환(만성 질환)					
	건강관련 행동	운동 부족					
		정기적 운동 지식(건강 증진)					
수면							
9. 빈곤 및 경제적 결핍	경제적 결핍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식이나 영양 결핍					
		옷, 신발 등 결핍					
		위생용품 결핍 (생리대, 마스크, 소독제 등)					
		의료 미충족(의료 결핍)					
		여가·문화생활 결핍					
		교육적 결핍(교육에 필요한 기기, 적절한 교육 기회, 등록금 학원비 등)					
		채무(빚)					

청소년 호소문제 유형 분류(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반영한 연구진 합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주거 빈곤 및 불안정	과밀주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불안정 주거(고시원, 반지하 등)					
		노숙					
		가출팸					
<기타의견>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 Basic Research on the Classification of Youth Problem Types

The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developed a classification system of youth problem types from 1994 to 2000 by conceptualized the youth problems as problems that teenagers appeal to. However, because no follow-up study on youth issues was conducted since 2000, the youth problems newly highlighted by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were not reflected.

Considering this reality, this study developed a classification system of youth problem types reflecting diversified youth problems through a literature study on the emerging youth problem since 2000, the analysis of the appealed problem of the CYS-Net, Focus Group Interview(FGI) conducted on academic and field experts, and the expert Delphi survey process. As for the youth problem type, 9 major(mental heal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cademic and career, overdependence/addiction, damage from violence damage, violence perpetration and delinquency, sex, physical health and physical awareness, poverty and economic deprivation), 43 medium, and 133 small categories were finally derived, and this shows a distinct characteristic from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of problem types. Specifically, this study constructed a major classification reflecting the problems that clients are recently complaining about in the consultation field compare to traditional type of classification system of problem types, and unlike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of problem types, which consists of two dimensions of major and sub classifications, and composed it into 3 dimensions of large-medium-small classification unlike the existing problem type classification system, which consists of two dimensions of large classification and sub-classification, to distinguish problems more systematical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is study laid the foundation for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nalysis of youth problems by classifying diversified youth problems from developmental problem to the youth issues that recently increased rapidly.

Secondly, this study made it possible to collect and analyze basic information on youth problems nationwide by organizing the problem type classification of the 'Integrated Youth Support Information System' that will be operated from 2023.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data-based policies through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data analysis of youth problems, especially problems of youth in crisis, conducted by more than 800 institutions nationwide such as Support Center for Out-of-School Adolescents, Support Center for Out-of-Family Adolescents, and Migrant Youth Center. Lastly, classifying problem types based on the appealed problems by adolescents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effective counseling-related services to adolescents considering that classifying the problems perceived and appealed by adolescents who are the beneficiaries of the actual counseling service is effective in identify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setting counseling goals and establishing intervention strategies.

Nevertheles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although the problem type system derived from this study secured validity through FGI and Delphi, the validity was confirmed in the second Delphi without presenting sub-classification of all areas in primary Delphi in the case of sub-classification. Therefore, supplementation and validation of the sub-classification system need to be made subsequently. Secondly, guidelines for classifying problem type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that counselor or case manager accurately and consistently identifies the problems that adolescents complain about. Lastly, a follow-up study to confirm the level of crisis for the newly developed problem type needs to be conducted because there are issues to be dealt with first in the counseling scene depending on the level of crisis.

* Keywords: types of youth problem, appealed problem of adolescents, appealed problem, delphi survey